

제6장 균형발전



제1절	균형발전	343
제2절	지역개발	367
제3절	신도시 건설	372
제4절	교통·물류	377
제5절	건축 및 주거문화 창달	397

제1절 균형발전

1. 지역균형발전 추진

가.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중앙집중의 시대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지방 스스로가 자생적 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자로 전국 유일의 局단위 균형발전본부(5팀 81명)를 설치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부응하였고, 2007년 6월에는 충북개발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를 두고 대학교수, 시군별 민간사회단체장, 도·시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을 설치, 지역별,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연구 및 지역발전 전략에 대한 지속적 연구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같은 시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담당공무원을 지정·배치하여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예산반영 등 전 과정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2007. 4) 및 규칙(2007. 5)을 제정하여 열악한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추진 여건을 마련하였고,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발전도 분석결과 음(-)으로 나타난 보은·옥천·영동·중평·괴산·단양 등 6개군에 대하여 2011년까지 총 1,007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낙후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5년마다 불균형 실태를 측정하여 발전도에 따라 지원 대상지역을 재선정하고 도비 지원을 차등화 하는 등 낙후지역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낙후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추진성과 평가, 사업비 가감지원제 도입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확립하여 생동감 넘치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전 지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국가균특회계(혁신계정) 중앙평가(인센티브 30억원),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평가(최우수, 대통령 기관표창), 균형발전 우수지자체 평가(대상, 포상금 10백만원) 등의 전국단위 평가에서 1위를 수상하여 균형실천도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략마련 추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과 연계하여 지역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종전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발전' 개념을 6+2의 '신지역발전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권역별·시군별 특화발전사업을 중점 육성할 것이며,

아울러,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별 사업(특화발전사업, 주요 현안사업), 권역내의 인접시군간 공동·연계 추진하는 사업,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의 효과가 도내 전역에 파급되는 광역사업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발전전략의 상시분석, 정책반영 및 방향제시를 위하여 권역별 전담 연구원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에 각각 배치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불균형 실태조사에 의거 발전도가 음(-)인 지역에 차등지원을 하겠으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부가가치 창출사업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전략사업을 평가하여 우수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2. 도시계획

가. 목적 및 추진개요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해 수립 하였고, 도시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비 대상 도시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해 나가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까지 시·군의 관할 행정구역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 분야별 추진실적

(1) 도시기본계획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제시를 위하여 도시특성에 맞도록 청주시는 2025년, 충주·제천시 2020년,

청원군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이 있다.

청주시는 2025년도의 계획인구 85만명을 목표로 청주 광역생활권의 행정·교육·문화·산업경제의 중심도시 및 국가 주요기능 수용 및 인공 첨단산업도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충주시는 2020년도의 계획인구 40만명을 목표로 충주 광역생활권의 중심도시로서 호반관광도시 및 중원문화권의 교육·문화·행정의 중심도시 등을 주요 기능으로, 제천시 2020년도의 계획인구 17만명을 목표로 제천 광역생활권 중심도시로서 태백공업지대를 연결하는 교통중심도시 및 관광배후도시 등을 주요기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청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호남고속철도분기역 건설,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등 주변여건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범위를 기존 청원군 관내 지역을 제외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충주시와 제천시는 도시의 발전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였고 청원군은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표됨에 따라 최초로 군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었으며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타 군지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초로 관할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표 2-6-1>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구분 도시별	면적 (km ²) 계	면적 (km ²)					인 구 (천명)				승인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개발 예정지	'96	2006	2016	증가율 (%)	
청주시	274.31	27.21	4.06	4.83	222.54	15.67	520	670	850 (2021)	1.8	'01.12.10
충주시	134.15	17.90	3.20	6.22	101.96	4.87	211	290	350	2.1	'98. 3. 6
제천시	122.52	11.81	1.40	4.10	104.25	0.96	118	160	180	1.3	'98. 3. 6

(2) 도시관리계획

우리 도의 도시지역은 57개 도시에 686.57km²로 도 전체면적 7,431.44km²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군별 종합적 토지이용을 계획하게 된다.

(3) 관리지역내 용도지역 세분화

'03.1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중전 준농림·준도시지역)은 토지특성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도내 관리지역 총2,250.14km²에 대하여 광역시와 인접한 3개군(청원군,보은군,옥천군)은 2005년말까지, 그 외 8개 시·군은 2007년말까지 관리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세분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2개군(청원,군,보은군)346.14km²에 대하여는 2007.12.28일자로 완료하여 고시하였으며, 나머지 9개시·군, 1,904km²(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은 현재 입안중이거나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라. 독자적인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99. 7. 2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시 대전권은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지역으로 결정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조정을 2000. 7. 1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광역도시권」에 청주, 청원, 보은, 옥천을 포함한 「대전·청주권」 또는 「중부권」 등으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청주권의 독자적인 발전 기반구축을 위하여 도지사 지휘보고, 건교부에 재심의 건의,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0. 10.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주시, 청원, 보은, 증평, 진천, 괴산, 음성군 등 1시 6군이 포함된 도내 총면적의 46%인 3,403.2km²를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으로 지정하고, 목표연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01. 11. 16 중앙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로부터 2001. 12. 10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오송중심의 패키지형 도시개발, 에어로폴리스 건설, 증평 I·C~영동 방면 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여 전 시·군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 등 청주광역권 주변 성장거점 출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청주, 청원, 진천, 증평 포함)확정,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 및 제3차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방안 프로젝트 수립 중('07.7~'08.4),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 등 광역권내의 여건변화로 청주권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전광역도시권은 4,633km²로써, 이중 대전 540km², 우리 도는 옥천, 영동, 청원(3

면, 보은(1면) 4군에 걸쳐 1,600km²으로 면적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도에 해당하는 광역계획으로는 청주공항 활성화 및 청주광역권과 연계하는 대전~청주(공항)간 고속화도로, 남북3축 고속도로를 보완하는 증평IC~청주공항~보은~영동간 자동차전용도로, 청주광역권 및 청주공항과 연계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상한 대전~청주(공항)~조치원간 경전선철도등이 있으며, 우리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6.6km²으로 청원군 현도면 26.9km², 옥천군 군서·군북면 29.7km²이며, 이중 해제가 가능한 조정가능지역면적은 집단취락지, 조정가능지, 현안사업지를 포함하여 4.49km²(413만m²)이며, 청원 2.9km²(290만m²), 옥천 1.59km²(158만m²)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되어 해제예정지로 결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오랜 숙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을 대상으로 집단취락지(28지구, 1.04km²)를 우선 해제하였으며 2006년도는 청원군 현도면 4개 집단취락지구(아래갬말, 큰배다리 중앙지구 양지지구) 297,710m²를 해제하였다.

2007년도에는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1개 집단취락지구(동·서평전말·용절이)190,747m²에 대하여 우선해제하였으며, 옥천군 군서·군북면을 대상으로 기 해제된 집단취락지(14지구, 585,850m²)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통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가. 행정도시 건설배경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어 2004년 8월 11일 신행정수도 건설의 최종입지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나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는데 있어서 꼭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기에 정부에서는 2004년 11월 18일 국무총리와 최병선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의원의 발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 제출, 2005년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공포되었다.

특별법의 국회 통과후 5월 18일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으나 특별법의 제정단계부터 행정도시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특별법에 대하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정부 및 충청권 도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005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로 결정되어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법률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행정도시건설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나. 도시개요

-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반포면 일원
- 면 적 : 예정지역 72.91km² (2,205만평) [건설교통부 고시 2006-418호]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사유 ('06.10.13)
73,137,059 m ² (73.14 km ²)	72,908,221 m ² (72.91km ²)	감) 228,838 m ²	예정지역 경계 변경없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면적정정

- 주변지역 223.77km² (6,769만평)
 - 충북 : 33.42km² (1,011만평), 청원군 부용·강내면 11개리
 - 충남 : 190.35km² (5,758만평), 연기군 남면외 6개면 63개리
 - ※ 우리도 주변지역 편입면적 : 33.42km² (1,011만평)
 - 부용면 8개리 27.42km² (829만평) : 부강, 금호, 등곡, 노호, 문곡, 행산, 산수, 갈산
 - 강내면 3개리 6.0km² (182만평) : 당곡, 사곡, 저산
- 인구규모 : 50만명(2030년)
- 이전대상 : 12부 4처 2청 등 중앙행정기관
- 건설소요액(상한) : 8조 5천억원
- 추진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추진상황

- 05. 3.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7391호)
- 05. 5.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제18831호)
- 05.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예정지역 : 2,212만평(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반포면)
 - 주변지역 : 6,769만평(충남 연기군일부, 공주시일부, 충북 청원군·부용면 일부)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 05. 6. 15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등 22명)

- 05. 7. 18 건설교통부·추진위원회 합헌의견서 제출
- 05. 7. 18 서울시 위원 위헌의견서 제출
- 05. 7. 21 법무부 합헌의견서 제출
- 05. 7. 25 과천시 위헌의견서 제출
- 05. 7. 26 경기도 합헌의견서 제출
- 05. 8. 12 충청권 3개 지자체(대전·충북·충남) 합헌의견서 제출
- 05. 8. 16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경기도 광명시, 정재명)
- 05. 9. 7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합헌의견서 제출
- 05. 10. 12 자치분권전국연대 및 시민사회인사(247명) 합헌의견서 제출
- 05. 10. 13 연기군 의회, 대책위원회 합헌의견서 제출
- 05. 10. 17 충청권 3시도지사 호소문발표 및 제출(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현재 등)
- 05. 10. 19 국회(열린우리당) 합헌의견서 제출
- 05. 10. 19 정재명의 헌법소원에 대한 건설교통부 및 추진위원회 합헌의견서
제출
- 05. 10. 19 정재명의 헌법소원에 대한 충청권 3시·도지사 합헌의견서 제출
- 05. 11. 1 행정자치부 합헌의견서 제출
- 05. 11. 22 충청권 3시·도지사 합헌결정 촉구 성명서 발표 및 충북도의회
의장 행정도시 합헌결정 촉구성명서 발표
- 05. 11.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각하결정
- 05. 12. 2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토지매입 착수
- 06. 1.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개청
- 06. 1. 2 광역도시계획권 지정·고시
 - 공간적 범위 : 청주, 청원, 증평, 진천 전역
 - 면 적 : 3,598km² [충북도 1,456, 충남도 1,602(연기, 공주, 계룡, 천안), 대전540]
 - 시간적 범위 : 2030년
- 06. 1. 12 행정도시건설청 개청 기념행사(우리도 참석 50여명)
- 06. 5. 3 건설기본계획(안) 발표
- 06. 5. 15 건설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청주 예술의 전당 회의실)
- 06. 5. 29 건설기본계획 우리도 의견제출
- 06. 7. 27 행정도시 도시명칭제정 국민공모 개시(9월 30일까지)
- 06. 7. 31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확정
- 06. 9. 29 개발계획 공청회 개최(대전 충남대)
- 06. 10. 13 제1차~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회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
정지역등 변경 지정

- 06. 10. 16 개발계획 우리도 의견제출
- 06. 11. 29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 확정
- 05. 9. 27~06. 12. 11 제1차~제9차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
- 06. 12. 20 광역도시계획(안)공청회 개최 (청주고인쇄박물관)
- 06. 12. 21 행정도시 명칭 「世宗」으로 확정
 - 세종: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기리는 도시이름이며 나라의 중심에 위치한 행정 중심도시를 상징
- 07. 1.25 ~07. 3. 8 제10차~제11차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
- 07. 3. 19 묘지공원 명칭 제정(은하수 공원)
- 07. 3. 19~20 행정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공개토론회
- 07. 3. 27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07. 5. 26 제1회 행복도시 세종 마라톤대회 개최
- 07. 6. 20 1단계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수립
- 07. 6. 22 행정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07. 6. 29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행정도시 실시계획 승인
- 07. 7. 20 기공식
- 07. 10. 1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설계 착수
- 07. 12. 4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국제설계경기 당선작 선정
- 07. 12.10 행정도시건설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라. 추진계획

- 정부청사건축 착공 : '08년 하반기
-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 (입주 '10년 말) : 2005 ~ 2011
- 행정기관 단계적 이전 및 주민입주 개시 : 2012년 이후
-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완성 : 2030년까지

마.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2005년 3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6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과정부터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최상철 교수, 서울시, 과천시의회의원, 연기·공주지역주민 등 222명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중대사업이 또다시 봉착에 빠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정부 및 충청권 3시·도 및 시민단체와 특별법 합헌결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으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합헌결정과 행정도시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도시형성 및 성숙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원칙을 제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이전기관의 배치,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부문별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설치, 재원조달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수립될 개발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은 '06. 7. 31관보에 최종 확정·고시되었다.

행정도시 개발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방향 및 공간골격(수용인구, 주택, 토지이용계획 등)을 형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게 되는 실시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지침을 마련하였다.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은 '06. 11. 29관보에 최종 확정·고시되었다.

행정도시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등을 통해 행정도시와 인근 충청권을 연계하는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도시와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하고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며, '06년 1월 연기·공주·대전·청주 등 충청권 9개 시·군(3,598km²)을 행정도시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였다.

【행정도시 광역계획권 지정 : 2006. 1. 2】

지정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 충북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 대전광역시 전역
지정면적	• 3,598km ² (충북 1,456, 충남 1,602, 대전광역시 540)

2007년도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인근지역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행정도시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전략 제시하였다.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권 추진상황】

-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국도연구원) : '05. 7.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1, 2, 3차) : '05. 10.
- 광역도시계획권 고시(건설교통부) : '06. 1.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4, 5, 6차) : '06. 7.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7차) : '06. 8.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8차) : '06. 1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9차) : '06. 12.
- 광역도시계획(안) 청주 공청회 개최 : '06. 1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개최(10차) : '07. 1.
- 충청북도의회 의견 청취 : '07. 1.
- 시·도지사 의견 청취 : '07. 2.
-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개최(11차) : '07. 3.
- 광역도시계획 최종 고시(관보) : '07. 6. 29

【행정도시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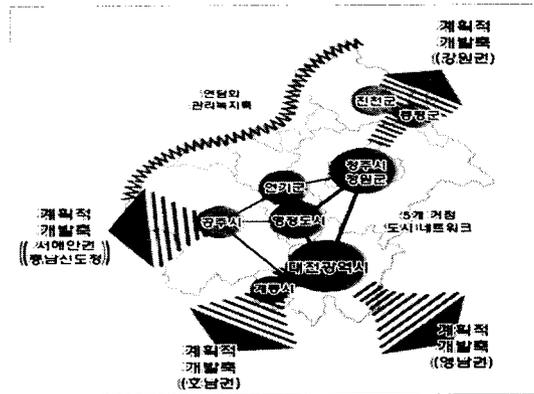
- 목표연도 : 2030년
- 공간적 범위 : 3,598km² ('06. 1. 2 건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지정·고시)

구 분 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면적(km ²)	3,598	1,456(40%)	1,602(45%)	540(15%)
권역	청주시, 청원·진천·증평군 전역	연기군, 공주·계룡시 전역, 천안시일부(동, 병천, 수신, 성남, 광덕면)	전역	

- 인구조표 : 370 ~ 400만명 (※충북 : 107~122만명)

□ 공간구조(개발축 설정)

- 제1축 : 서해안 지향
- 제2축 : 호남권 지향
- 제3축 : 영남권 지향
- 제4축 : 중부내륙 및 강원권 지향



※ 경부축에 대한 개발집중과 수도권과의 연담화를 억제하기 위해 연담화 관리 녹지축을 설정

□ 부문별 계획

○ 토지이용 계획

《 시·도별 개발용지 배분 》

(단위: km²)

구 분	도시용지 (기 지정현황)	도시화예정용지	기타용지
계 (행정도시 예정지역 제외)	191.30	74.75	51.92
대전광역시	108.63	21.01	18.03
충청북도 (광역계획권 해당지역)	64.73	31.84	24.99
충청남도(광역계획권 해당지역)	17.94	21.90	8.90

○ 광역교통 계획

-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속순환교통체계 형성 (도로망 상호 연결)
- 행정도시 관문을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 구축 (오송역, 공항 연결)
- 행정도시와 거점도시간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 구축 (도시간 상호 연결)

○ 녹지 관리 계획

- 전국 생태축 및 행정도시 생태네트워크를 연계한 녹지관리체계 구축
- 수도권과의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보존녹지의 관리
- 산·하천을 연계한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 경관 계획

- 경관관리거점을 설정하여 거점별 특성에 따라 관리지침 수립
- 주요 산과 수변공간의 전망을 고려한 도시 가로경관계획 수립

○ 환경보전계획

-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이 연계된 광역적 대기관리체계의 구축
- 유역차원에서 수질 및 하천관리 강화
- 소각시설 확충 및 협력적·광역적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 하천, 공원, 수림지에 대해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비오톱 조성

※ 비오톱(Biotope) : 숲, 가로수, 습지, 하천, 공원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연물이나 인공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생물서식공간

○ 광역시설계획

- 기존 상수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취수원을 개발
-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단계별 용량확충
-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장의 조기건설



- 대규모 운동장시설의 공동이용을 도모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관리 강화
- 종합물류수송체계 구축 및 광역계획권내 거점도시별 유통단지 배치
- 문화 및 여가계획
 - 청주의 고인쇄문화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거점 육성 추진
 - 관광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국적 문화·여가·관광 체계와 연계
 - 문화·여가자원의 적정관리 및 여가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 자연자원과 인공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문화·여가계획을 수립
 - 행정도시 및 대전광역시 등의 대규모 문화시설을 광역적으로 활용
- 방재계획
 - 행정도시 및 거점도시 간 광역적 방재체계 구축
 -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도시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방재거점 및 대피공간으로 활용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제고, 기발시설 및 건축물 설계기준 강화 등 시가지 방재계획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완료 : '08. 6. 22】 : 총사업비 1조 3,412억원

□ 개요 : 행정도시 인근의 도로·철도 및 충청권 주요 도시간의 연결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건설청장이 수립하였으며, 건교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07.6.22일 광역교통개선 대책 확정

□ 도로부문

구분	구간	차로수	연장 (km)	사업비 (억원)	시행주체	시행시기
①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6	11.2	3,318	건설청	2011
②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6	6.5	1,642	건설청	2013
③	오송~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4	11.8	3,521	건설청	2017
④	청원IC 연결도로 확장	6	3.5	759	건설청	2017년 이후
⑤	청주시 연결도로 신설	4	9.2	2,592	건설청	2017년 이후
⑥	오송역~조치원역 연결도로 확장	6	3.0	1,080	건설청	2017년 이후
	합계		45.2	12,912	-	-

구분	개선내용	사업비(억원)	시행주체
①	행정도시~고속철도 오송역(상급BRT)	500	건설청

□ BRT 부문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 : 예정지 경계로부터 약20km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

- 1단계 : 접근시간 개선방안 추진 : '05. 11 ~ '06. 4
- 2단계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추진 : '05. 2 ~ '07. 2
 - 시행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용역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우리도 전략노선 반영요청 : '06. 7.

※ 청주공항 중심의 교통체계 연계 및 국제규모시설 확충

- 광역교통개선대책(안) 작성 : '06. 10.
 - ⇒ 우리도 전략적 반영 노선 반영요구 및 협의
 -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 교통체계 구축
-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 '06. 12.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의견제출 및 심의 : '07. 4.
-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 '07. 5.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완료 : '07. 6. 2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행정구역 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

- 개 요 : 행정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 등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행정도시의 명칭·지위·행정구역을 설정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대 산학협력단 국가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06.9~'07.3)을 건설청과 행자부가 공동으로 연구용역 추진
- 용역명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관할구역 등에 관한 연구
- 용역금액 : 78백만원
- 용역기간 : 2006. 8. 30 ~ 2007. 6. 30
- 계약자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과업내용
 - 법적지위·명칭·구역 관련 방안 검토
 - 행정도시 제도 설계
 - 외국 행정수도 사례조사

- 종합법률안 제시
- 지위·구역 설정 등의 추진전략 제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지원】

○ 그간의 추진경위

-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명칭·지위·행정구역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 2006년 9월 지위·관할구역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2007. 5. 완료)
 - ※ 행복도시건설추진위에서 도시명칭을 ‘세종’(世宗)으로 결정(2006.12.)
- 2007년 4월 관계기관회의 개최, 부처·지자체 등 의견수렴
- 2007년 5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입법 방침 논의

○ 법률(안) 주요내용

〈명칭·법적지위〉

- 행정중심도시의 지위·위상을 반영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명
 -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자치시’를 신설(지방자치법 개정)
- 정부 직할하에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자치단체
 - 출범시 인구가 과소(2010년 46천명)하나 건설취지·위상에 부합

〈관할구역〉

-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 + 주변지역
 - ※ 연기·공주·청원 일부지역 : 총297km²(창원시 규모)

〈지방자치단체 설치시기〉

- 지방동시선거(2010.6.3)와 첫마을 입주(2010년 하반기)를 고려하여 2010년에 설치

○ 입법 방식

- 행복도시는 기존 자치단체(3개 시·군)을 존치시키면서, 그 관할구역 일부에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임
 - 원활한 도시건설을 위해 지위·관할구역 등 조기확정 추진
 - 지자체 계층구조 등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 특례규정 필요

○ 의견수렴 절차

-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설치시에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되어 있음(지방자치법 제4조)
 - ※ 관계 지방의회(5개) : 충북·충남도 의회, 연기군·공주시·청원군 의회

○ 추진일정

- 지방의회 의견수렴 : 5월~6월

- 입법예고·부처협의 : 5월말
- 규제심사·법제처심사 : 6월초
- 차관회의·국무회의 : 6월
- ※ 6월 임시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 추진

○ 국회 심의과정

- 법률안은 6월 22일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9월 20일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1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실시되었다.
-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등 법안심사를 위해 법안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소위에서 공청회 일정과 법안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07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처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추진상황】

- 07. 2. 20, 4. 24 지사님 주재 행정도시 건설청 간담회 개최
- 07. 3. 20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건의
- 07. 4. 17 건교부장관 방문시 건의
- 07. 5. 2 행정부지사 건설청 방문 건의
- 07. 5. 17 정무부지사 건설청 방문 건의
- 07. 5. 21 (행정자치부) 법률안 입법예고(6.11까지)
- 07. 5. 28 (정책기획관실)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소집
- 07. 5. 29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 입법관련 관계부처 회의(행자부, 건교부, 건설청)
- 07. 5. 30 (정책기획관실)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상정요청
- 07. 6. 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설명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7인
- 07. 6. 11 (충청북도 임시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견 확정
- 07. 6. 11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세종시설치법률안에 대한 충북도의
회 의견제출
- 07. 6. 11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세종시설치법률안에 대한 충북도 의견
제출
- 07. 6. 14 (국무조정실) 세종시설치법률안 차관회의 개최
- 07. 6. 19 (국무조정실) 세종시설치법률안 차관회의 개최
- 07. 6. 22 (행정자치부) 법률안 국회 제출



- 07. 6. 28 (세종시추진 연기주민연대) 세종시설치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 07. 7. 13 (세종시편입 부용추진위) 세종시설치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 07. 8. 8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행정도시건설청 방문
- 07. 8. 14 (건설청) 충북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07. 8. 22 (건설청) 세종시설치법 주민설명회(토지공사)
- 07. 8. 23 (건설청) 세종시설치법 주민설명회(연기군)
- 07. 8. 30 (건설청) 세종시설치법 주민설명회(공주시)
- 07. 8. 31 (건설청) 세종시설치법 주민설명회(청원군)
- 07. 9. 3 (건설청) 충청권 국회의원 간담회
- 07. 9. 5 세종시설치법관련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면담
- 07. 9. 7 (건설청) 충북사회단체 간담회
- 07. 9. 11 (연기군 의회) 세종시설치법 조속통과 성명서 발표
- 07. 9. 13 (시민사회단체) 충북, 대전, 충남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 07. 9. 17 (시민사회단체)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07. 9. 18 청원군 부용면 세종시편입추진위원회 국회 방문
- 07. 9. 20 청원군 편입반대대책위원장(오경세) 국회 행사위 방문
- 07. 11. 13 (국회) 세종시설치법 대체토론
- 07. 11. 19 (중부매일) :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와 충청권 발표방안 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안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구분	명칭	법적지위	관할구역	시행시기	기타의견
충남도의회	연기	도농통합시 (기초자치단체)	연기군잔여지역 포함	'09년이후 논의	입법절차 및시기 부적절
충북도의회	세종	특별자치시	주민주표를 통해 희망지역에 한해 편입	'10. 7. 1	
연기군의회	연기	광역자치단체	연기군잔여지역 포함	'10. 7. 1	잔여지역 미포함시 주민투표로 결정
공주시의회	없음	지위는 공주시민 주민투표로 결정	주변지역 제척	없음	주변지역 미제척시 주민투표로 결정
청원군의회	세종	특별자치시	주변지역 제외	없음	주변지역포함시 주민투표로 결정
충청남도	없음	현단계에서 논의 유보, 입법을 한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	현단계에서 논의 유보, 입법을 한다면 연기군 잔여 지역 포함	'11년까지 법률제정	행정구역 폐치 분합시 주민투표 요구

구분	명칭	법적지위	관할구역	시행시기	기타의견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예정지역	'10. 7. 1	주변지역포함시 주민투표로 결정
연기군	연기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통합시	없음	주민은 정부직할 광역 자치단체 희망 잔여지 역에 행·재정적 우대 방안 요구
공주시	없음	없음	주변지역 제외	없음	행정구역 폐치 분합시 주민투표로 결정주변 지역 및 공주시에 대 한 보장대책을 법률로 제정
청원군	세종	없음	주변지역 제외	반대	행정구역 폐치분합시 주민투표로 결정

(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 개요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용역(2005.9~2007.3)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에는 주변지역 지원대책 수립

□ 추진상황

-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공포 : '05. 3. 18
-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정·고시 : '05. 5. 24
-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 최종 확정·고시 : '06. 7. 31
- 행정도시 개발계획 고시 : '06. 11. 29
- 행정도시 주변관리방안 연구용역 완료 : '07. 3. 31
-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07. 6. 1
-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협의회 회의 : '07.7.26, 9.18, 10.5, 11.9
-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건설청) : '07. 12. 28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2010(3년)
- 대 상 : 청원군 2개면 26개리(강내면 5, 부용면 21)
 - '08년 : 부용면 9개리(금호1·2·3, 노호1, 등곡2, 문곡2, 부강7, 행산1·2)
 - '09년 : 강내면 2개리(당곡, 사곡2)
 - 부용면 9개리(금호3, 노호1·2, 문곡2, 부강1·5·8·9, 행산1)
 - '10년 : 강내면 3개리(사곡1, 저산1·2)

부용면 7개리(갈산1·2, 등곡1·3, 문곡1·3, 산수)

* 금호3, 노호1, 문곡2, 행산1 : '08~'09년 사업시행

지역	전체		'08년(1차)		'09년(2차)		'10년(3차)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7	5,943	14	2,096	13	1,050	20	2,797
강내면	7	1,217	-	-	2	479	5	738
부용면	40	4,726	14	2,096	11	571	15	2,059

○ 총사업비 : 5,943백만원/46개 사업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서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의당면, 충북 청원군 부용면·강내면 일대로 3개시·군 9개면, 74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223.8km²(6,769만평)를 지정하였다. 충북 주변지역은 33.42km²(1,011만평)이며 청원군 부용면·강내면 11개리가 편입되어 있다. 편입된 부용면 면적은 27.42km²(829만평)이며 부강리, 금호리, 등곡리, 노호리, 문곡리, 행산리, 산수리, 갈산리 8개리이다. 강내면 면적은 6.0km²(182만평)이며 당곡리, 사곡리, 저산리 3개리가 편입되어 있다.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의 개발영향권에 있는 지역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05.5.24)하였으며, 주변지역의 기능은 주변도시와의 연담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예정지역의 개발촉진과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하는데 있으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주변지역 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다음 날 주변지역은 해제된다. 2006년 12월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08년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하고 관계기관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행정구역으로 예정지역까지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확대·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도시기본계획

과업을 추가하여 추진하도록 2007년 7월 16일 결정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연구협의회, 세종도시포럼, 총괄기획자문단회의 등의 자문을 받으며 2008년 말까지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07.2.28, '07.5.25, '07.10.10 세종도시포럼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으

로 하여금 2005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지원사업계획 수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에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3개 시·군 9개면 104개 마을(행정리 기준) 170.5km²(연기군 4면 52마을 69.7km², 공주시 3면 26마을 70.1km², 청원군 2면 26마을 30.7km²)가 대상이다. 2007년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2010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새로이 개발행위 규제를 받는 연기군·공주시·청원군(강내면 5, 부용면 21)관내 10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08~2010년까지 총5,943백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안길, 마을회관 등 13종 주민공동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2008년 연기군에 145억원, 공주시에 149억원, 청원군에 59억원을 투자하고 연차별로 청원군은 2008년에 2,096백만원, 2009년에 1,050백만원, 2010년에 2,79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청원군2008년 지원사업비는 국고에서 80%(1,677백만원), 토지공사에서 20%(419백만원)를 부담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은 지원사업의 성격 및 주민협조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연기군수, 공주시장, 청원군수가 행하게 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속추진을 위한 충청북도의 활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 2005년 1월 10일에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충청권 3시·도지사, 시민대표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 2005년 3월 24일 지속적인 행정도시 건설을 위하여 행정도시 예정·주변지역 경계설정에 관한 간담회를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행위제한 완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 5월 4일, 6월 4일 2회에 걸쳐 주민간담회를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도의 주변지역 주민의견사항을 행정도시건설추진단에 제출하였으며
- 8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응코자 중앙기관, 충청권 3시·도, 변호사 등이 함께 모여 위헌소송 충청권 공동의견서 제출을 위한 독회를 개최하여 8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전·충북·충남과 공동명의로 특별법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하였다.
- 또한 10월 11일 헌법소원관련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급 시민사회 단체와 적극 대응키로 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였다.
- 10월 18일 충청권 3시·도지사의 합헌결정 촉구호소문을 발표하고 충청권주민의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에게 호

소문을 전달하였다.

- 10월 19일에는 경기도 광명시 정재명이 제출한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청에 대한 충청권 3시·도지사 합헌의견서를 제출 하는 등 신행정수도 범충청원협의회, 신행정수도지속추진 범충북도민연대 등 각급 시민사회단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적극 대응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주변지역과 광역권의 체계적인 공간구조 설정과 우리도의 국토핵심 거점화 실현을 위하여 2006년 3월 27일 4차 광역도시계획협의회~2006년 12월 11일 9차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해 광역도시계획권을 지정하기위한 논의를 진행시 우리도 의견을 적극 제시 하였다.

【협의내용】

- 공간구조 검토시 청주·청원은 행정도시의 관문기능, 국제교류, 첨단 IT,BT 산업의 혁신거점지역으로 해줄것과 진천·증평은 혁신도시 및 첨단·항공산업, 연구개발 기능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광역시설계획 검토시 오송역은 행정도시의 관문역 기능 및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청주국제공항은 행정도시의 관문공항으로 연계하는 도로망 확충 제시 행정도시 건설에 충청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호협력 도모하고자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지역사회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충청도시포럼 개최하여 우리의견을 제시

【의견내용】

- 청주공항의 기능을 행정도시와 연계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
-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단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 방침과 방향 제시

2007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였다. 광역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전국적 접근성이 향상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외로 구축돼 충청권이 하나의 교통권이 될 전망이다.

또한 2007년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다. 2007년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였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권역으로서의 기본구상과 충청권 주요지역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을 통한 발전방향과 인근지역의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행정도시·연기~공주~대전·계룡~청주·청원~진천·증평을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국토의 주요 방향으로 계획적 개발축을 설정하는 등의 개발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2) 충북도의회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운영

도의회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9일 김정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역량결집과 충청권 공조, 대정치권 설득을 위해 신행정수도 범도민연대 조찬간담회, 도의회 특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또한 11월 21일 특별법 합헌결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에게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합헌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3) 각급 시민단체 활동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11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03. 2. 19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충북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하여

- 2005년 1월 3일 신행정수도 관철을 도민결의대회 개최
- 7월 25일 특별법 위헌소송규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성공기원제개최
- 9월 7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공동대표 및 공동 집행위원장 명의로 위헌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 10월 11일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를 개최, 충청권 3시·도 협의회대표, 언론사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 일부시민의 주장하는 행동에 적극 대처방안을 강구하였으며
- 10월 20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합헌결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바. 향후 추진계획

2005년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의 각하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충청권이 국가의 중심으로 부상하는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토공간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수정계획에 X자형 발전축, 중원문화권, 청주공항의 행정도시관문 공항화 등 우리도의 발전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행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의 중심, 교통물류망의 중심지인 국토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건설을 위한 공간계획을 구체화하여 2007년도에는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 완료하였다. 첫

마을 사업은 2007년 7월 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7년 7월 20일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07년 행정도시 추진 내용을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지역 간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인근지역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행정도시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교통체계에 있어서도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추진하였는데,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연구용역(2005.9~2007.3)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에는 주변지역 지원대책을 수립하였고 행정도시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행정구역 설정 등을 위해 「행정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을 지원하였다.

행정도시는 2006년과 200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건설로 추진되었고 2008년도는 도시 공간을 채워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현재 행정도시는 도시 건설에 필요한 각종 계획 수립을 대부분 완료하여 건설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첫마을 대지조성공사 착공, 첫마을 지역 문화재 조사, 토지·지장물 보상 등을 완료하였다. 향후 2008년도에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 국제설계경기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녹지공간을 현실화 해나가며 행정도시의 랜드마크적 시설물 건립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행정도시 주택공급계획(2007~2030년)마련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교통 및 도시교통계획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시기와 일치하도록 하며, 중심행정타운 복합커뮤니티 조성도 할 것이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단계별 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행복아파트 건설 시행, 장사시설 일부 준공,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도시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자치단체 설립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청사건립 1단계 사업의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의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건설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도시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될 것이다. 행정도시는 2010년 말 첫마을 입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기관의 입주와 더불어 단계적 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5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완료할 것이다.

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농촌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창조를 통한 공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본격 추진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은 전국 공모를 거쳐 '07년 2월 30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충북도에서는 보은군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조성 및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에듀빌리지 만들기 2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각각 20억원이 지원되며, 사업추진이 완료 되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07년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전국콘테스트에서 우수지자체로 제천시가 2억원, 충북도와 괴산군이 각각 1억원 지원 받았고, 마을로는 금상에 영동군의 주곡리 포도이야기, 은상 제천시 남천 5통 남천공원 조성, 동상 단양군 대가리마을의 문화쉼터 만들기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도에서는 '08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의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2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 시군의 추천을 받아 우리 마을 보물 가꾸기 사업을 평가하여 10개 우수마을을 선정 마을별로 2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을 활동기반으로 하는 산,학,연,관,민 등 혁신주체들이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학습과 혁신 창출에 체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단위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혁신체계 형성을 촉진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 지방 스스로가 자생적 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03. 11월 출범한 지역혁신협의회는 그동안 충청북도의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05년 전국 최우수 지역혁신협의회로 선정, 2006년도에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워크숍, 혁신특강 등을 통하여 내부 혁신역량 강화 및 확산, 혁신주체로서의 민주적 리더쉽 확보, 지역갈등 조정 및 발전비전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에 도의 혁신사례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충북대학교 IT-NURI사업단이 전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지역혁신의 선도



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연구회는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중견향토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발굴 및 육성방안’ 등 다수의 연구보고서 발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면서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하였고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등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학·연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역량을 기르고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하여 도내 균형발전추구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제2절 지역개발

1.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1973. 6. 27일 건설부고시 제258호로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후 2005. 1. 27일 충청북도고시 제2005-14호 옥천, 2005. 3. 11일 충청북도고시 제2005-29호 청원 변경 고시, 2006. 12. 29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6-215호 옥천 변경 고시, 2007. 8. 9일 충청북도 고시 2007-157호 청원 변경고시 되어, 현재 충청북도는 2군 3면에 걸쳐 55.068km²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6-2>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구 분	시군별	충 북	청 원	%	옥 천	%
총 면 적(km ²)		7,431.504	814.128	10.9	537.294	7.2
G · B(km ²)%		55.068	25.954	47.1	29.114	52.9
		0.741	3.188		5.418	
총 세 대		574,189	55,221	9.6	21,259	3.7
G · B%		71	56	78.9	15	21.1
		0.01	0.1		0.07	
총 인 구(인)		1,506,608	143,021	9.49	54,608	3.6
G · B%		190	153	80.5	37	19.5
		0.01	0.1		0.07	

※ 군(청원, 옥천) 점유율은 충북내 현황에 대한 분포율임.

<표 2-6-3>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

구 역	지 역 별	면적(km ²)	행 정 리동수	가구수	인구수	건축물 동 수
계	2군 3면	55.068	21	71	190	428
	청 원 군	25.954	10	56	153	317
	현 도 면	25.954	10	56	153	317
대전권	옥 천 군	29.114	11	15	37	111
	군 서 면	21.621	8	3	8	60
	군 북 면	7.493	3	12	29	51

2. 도시가로망 정비

도시 교통난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교통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의 건전한 성장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도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우리 도는 교부세사업으로 청주시의 외곽순환도로 외 3건, 충주시의 동부우회도로 외 3건, 제천시의 국도38호 우회도로개설 외 1건 등 3개시 10노선 6.24km에 30,57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청주시 외 11개시·군 27개소 8.17km에 14,200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도내 전체 총 37노선 14.41km에 44,774백만원을 투입하였다.

2008년도에는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던 청주시의 외곽순환도로 개설등 3개시 8노선 3.47km와 도비지원사업으로 37개 노선 6.03km등에 총11,400백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가로망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3. 개발촉진지구 지정

가. 배 경

개발촉진지구는 2002. 2. 4일 개정(법률 제6,656호) 공포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지역개발제도로 지방의 개발 잠재력을 집중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추진상황

우리 도는 '96년 보은군, '97년 영동군, '05년 단양군·괴산군 지역을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04년 제천시 지역을 도농통합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 연차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지구에 3,406억원, 영동지구에 2,041억원, 단양지구에 2,427억원, 제천지구에 3,776억원, 괴산지구에 1,759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 투자가 저조한 편이며 국비지원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보은 개발촉진지구

보은개발촉진지구는 '96. 4월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96년말까지 사업지구간 연결도로 5개 노선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까지 총 707억원을 투입,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였다.

□ 사업개요

-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외 4개면 일원
- 지정면적 : 135km²
- 사업기간 : 1996년~2006년(11년)
- 사 업 비 : 3,406억원
- 주요사업 : 17건(관광휴양 7, 주민소득 4, 기반시설 6)

(2) 영동 개발촉진지구

영동개발촉진지구는 '97. 10월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99년말까지 2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지구간 연결도로 3개 노선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까지 총 564억원을 투자하여 마산~우매간, 구촌~시금간, 설계~회동간 도로공사를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는 665백만원을 투입하여 축청교 가설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 사업개요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외 3개 면 일원
- 지정면적 : 128.3km²
- 사업기간 : 1998년~2008년(11년)
- 사 업 비 : 2,041억원
- 주요사업 : 8건(지역특화 1, 관광사업 1, 기반시설 6)

(3) 제천 개발촉진지구

제천 개발촉진지구는 2004. 7월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하였으며 민자유치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5. 7월 한국토지공사와 제천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7. 7월 지역종합개발지구 지구지정을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고시하였다.

□ 사업개요

- 위 치 : 제천시 봉양읍·백운면 일원
- 지정면적 : 145.9km²

- 사업기간 : 2004~2013년(10년)
- 사업비 : 3,776억원(민자)
- 주요사업 : 체천리조트단지, 장평유통단지, 백운특화단지

(4) 단양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 선정지표의 변경(2003.2.21)으로 단양 개발촉진지구는 2005. 11월 추가 지정되었고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2005. 11월)되어 2007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8년부터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 사업개요

- 위치 : 단양군 단양읍 외 1개읍, 4개면
- 지정면적 : 144km²
- 사업기간 : 2005~2014년(10년)
- 사업비 : 2,427억원
- 주요사업 : 13건(지역특화 3, 관광휴양 7, 기반시설 3)

(5) 괴산 개발촉진지구

낙후지역 선정지표의 변경(2003.2.21)으로 괴산 개발촉진지구는 2005. 12월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7. 4월에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2008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9년부터 기반시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사업개요

- 위치 : 괴산군 괴산읍 외 4개면
- 지정면적 : 128km²
- 사업기간 : 2005~2011년(7년)
- 사업비 : 1,759억원
- 주요사업 : 15건(관광휴양 10, 기반시설 5)

4. 소도읍 육성사업

가. 추진배경

읍지역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축으로 배후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도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과밀의 거대도시 확산과 농촌붕괴 문제가 시급한 국가적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2001. 1. 8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

을 계기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읍지역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육성계획에 내재된 소도읍의 개발 잠재력을 Theme로 특성화 한 육성전략을 강구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나. 추진대상 및 현황

(1) 추진대상

충주시 주덕읍, 제천시 봉양읍, 청원군 내수읍, 보은군 보은읍, 옥천군 옥천읍, 영동군 영동읍, 증평군 증평읍, 진천군 진천읍, 괴산군 괴산읍, 음성군 음성·금왕읍, 단양군 단양·매포읍 등 13개읍이다.

(2) 추진현황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영동읍·괴산읍·매포읍·봉양읍·보은읍·내수읍 등 6개 소도읍에 사업비 856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동읍은 용두산공원 조성등 3개 사업에 250억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년에 선정된 괴산읍은 문화스포츠타운 및 하천생태공원조성 등 4개 사업에 186억원, 매포읍은 매화소공원조성 등 5개 사업에 225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에 착수한 제천시 봉양읍과 보은군 보은읍, 2007년에 선정된 청원군 내수읍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2013년까지 연차계획에 의거 미선정된 7개읍(주덕,옥천,증평,진천,음성,금왕,단양)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제3절 신도시 건설

1. 혁신도시 건설

가. 개요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국가재도약은 물론 지역의 성장거점이자 균형 발전의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산·학·연 기관의 동반유치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세계수준의 도시로 건설하는 혁신도시는 진천 덕산·음성 맹동지역에 689만㎡ 규모로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경위

2004년 3월 “정부의 지방이전 충청권 배제설”이 일간지에 보도된 이후 충청북도와 북부권 주민을 중심으로 ‘충북배제 철회운동’을 활발하게 펼친 결과, 2005년 6월 24일 정부에서 충청북도에 12개의 공공기관 이전대상 기관을 배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도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05.7.26)하고 중앙행정기관·도·이전기관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05.8.16)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을 확정(‘05.12.15)하고 입지후보지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05.12.16~12.20)하여 현장조사를 거친 후, 혁신도시 후보지로 진천 덕산·음성 맹동지역(909만㎡)을 선정하고, 이전대상 기관 중 업무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3개 연구기관을 제천종합연수타운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발표(‘05.12.23)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혁신 도시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내정(‘06.2.9)하고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06.10.31), 토지이용,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를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07.5.31)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한 실시계획을 수립(‘07.12.17)하였으며 2012년 기반조성 및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다. 보상 및 홍보

단순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을 위한 기존의 협의회 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주도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보상협의회』를 구성

(‘07.4.10)하여 1차보상협의회(‘07.4.16)를 시작으로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의를 구성·운영하였다.

보상초기 단계의 토지 및 물건조사에서 발생하였던 주민들과의 마찰과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토지보상계획을 공고(‘07.5.18)하고 6.192km² / 4,453필지에 대한 협의보상에 착수(‘07.10.17)하여 토지보상율이 70%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혁신도시 발전방향과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전기관과의 워크숍을 개최(‘07.11.15~16)함은 물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구성」과 혁신도시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 활용, 버스광고 추진 등 홍보활동에 적극 매진하였다.

<표 2-6-4>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 현황

(2007. 12. 31현재)

구 분	대 상 기 관	직원수 (명)	연교육 인 원(명)	예 산 (억원)	지방세 (천만원)	위 치
합계	12개 기관	2,377	59,759	5,044	111	
정보통신 기 능 군	한국인터넷진흥원	110	-	158	10	서울 서초구
(3)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	-	2,000	20	서울 송파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	-	165	8	경기 과천시
	한국교육개발원	250	-	246	11	서울 서초구
인력개발 기 능 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1	-	551	23	서울 종로구
(5)	한국노동교육원	90	34,209	126	3	경기 광주시
	법무연수원	160	14,735	90	2	경기 용인시
	중앙공무원교육원	129	7,452	124	2	경기 과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286	-	834	10	경기 시흥시
기타기관	한국소비자원	260	3,363	167	8	서울 서초구
(4)	기술표준원	288	-	379	5	경기 과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3	-	204	9	서울 서초구

2.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가. 배 경

’05. 12. 23일 충청북도에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후보지 평가결과 제1순위인 진천·음성지역에는 12개 이전대상 기관중 9개 공공기관을 배치하고, 제2순위인 제천지역에는 연수기능군 3개기관을 배치함으로써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는 개별이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나. 추진경위

충청북도의 공공기관 개별이전 결정사항을 2006. 5. 12일 공식적으로 정부에 승인요청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입지선정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개별이전을 건의하는 등 개별이전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확실한 정부입장 표명이 없어 지역·기관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07. 5. 31일 정부에서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충청북도의 방침이었던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07. 10. 1일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다. 정부협의 요지

제천종합연수타운은 제천시 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일원의 농경지 및 구릉지에 전체 2.98km² 규모로 조성하며, 1단계로 1.69km²를 조성하되 조성면적은 충청북도·제천시·대한주택공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3개 기관 이상의 연수시설을, 제천시에서는 법원·검찰청사 등 4개 이상의 기관과 3개 기관 이상의 연수시설을 유치하기로 하였으며, “공공기관종합연수원(가칭)”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참여기관 모집과 MOU 체결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더불어 공공기관 연수시설에 대한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부지 분양가 저감을 위해 폐기물처리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분담금 감면을 추진하는 것과 충북도와 제천시에서 매각손실범위 내에서의 기반시설 건설 및 소요사업비의 일부 정부요청 등이 있다

또한 정부 협의사항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운영 및 MOU체결 등을 추진하는 등 후속대책까지 협의하였다

라. 추진상황

제천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실무협의안을 바탕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는 기본협약서(MOU)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입회 하에 '07. 10. 9일 제천시청에서 체결하였다.

'07. 11. 29일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수도권의 기업·공공기관 등의 CEO 및 임직원 282명이 참석하였으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투자상담을 벌여 연수시설 유치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본격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가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부서와 협의중에 있다



3. 기업도시 건설

가. 개 요

충주 기업도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05.7.08)되어 첨단 전자·정보 부품소재산업이 주를 이루며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에 약 700만㎡, 계획인구 20,200명 규모로 2011년 부지조성, 2020년까지 도시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주)가 창립('07.05.30)되었으며 참여기업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주)포스코건설, 임광토건(주), 포스데이타(주), 농협, (주)엠코, 동화약품공업(주), 충주시가 있다.

기반시설 조성에 5,5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 이후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와 1만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어 중부내륙권의 중심·거점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나. 추진경위

정부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포 이후 충주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확정('07.5.07)하였으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07.9.28) 후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로 실시계획이 승인

(‘08.2.27) 되었다. 향후 2008년 상반기 착공 및 보상추진을 목표로 하여 2011년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계	가 용 토 지				공공보전용지
		지식산업용지	주거용지	기타용지	유보지	
면적(천㎡)	7,013	1,226	748	1,263	246	3,530
구성비 (%)	100	17.5	10.7	18.1	3.5	50.2

제4절 교통·물류

1. 지역발전 SOC 확충

가. 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

우리 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도로서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육로운송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국가의 기간철도인 경부선과 국토의 허리격인 충북선, 그리고 영남, 영동, 수도권을 잇는 중앙선이 관통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도시와 2~3시간이면 왕래가 가능한 지역으로 어느 도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지역특성상 통과차량이 많은 도이다. 특히 2005. 6. 30.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으로 오송이 확정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역인 동시에 중부권 핵심Hub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1)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단군 이래 우리 도에서는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고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으로 국토의 경쟁력 증대,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과 여가문화 기회확대, 국토의 공간구조 개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속도로나 공항을 능가한 교통혁명이라 일컫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1992년부터 시작되어 2004. 4. 1. 1단계(서울~대구)가 개통되어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도래 되었다.

1988년 정부에서 당초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도는 옥천, 영동지역이외는 노선통과가 제외되었으며, 특히 도청소재지인 청주·청원지역 노선통과가 아닌 충남 연기군 조치원지역을 통과토록 하였고 정차역 건설은 계획조차 없었다. 이에 150만 도민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속철도노선 충북통과와 정차역 건설을 위해 정부에 부당성 제기 및 가두서명운동전개, 쥘기대회, 항의방문, 의회·시민단체 성명서등 각고의 노력 끝에 1991. 10. 11. 정부에서는 고속철도 본선 충북통과 및 역세권 인구 100만 초과 시 오송에 역설치를 검토한다는 발표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오송역설치를 위하여 1999. 6. 30. 사업비 616억원을 투입 궤도공사 등 노반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정부의 계획에도 없는 정차역 건설을 위해 2001년 역사설계비 30억원, 2002년 역사부지 매입비 40억원, 2003년 역사건립비 200억원을 정부 예산에 확보하였고 역사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2003년 27천㎡를 매입하는 등 총 60

천m를 확보하였다. 이와같이 오송역 건설을 위하여 민·관등 도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2003. 11. 14. 오송역을 2010년까지 완공·개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확정 발표되어 2004. 4월 역사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발주된 바 있다.

(2)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정부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상호 보완성, 연계성 등 수송체계의 극대화와 국가균형 발전 및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3. 8월 호남고속철도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1999. 10월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천안~익산~목포」 노선(안)을 표기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충북선과 연결되는 철도의 X축 구축과 경제성, 통행수요 등 천안보다 월등히 우월한 오송이 분기역 최적지라며 강력한 부당성 제기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2001. 5월 제2차 기본계획용역을 교통개발 연구원에 발주하였으며 노선 및 정차장 부문은 우리 도의 요청에 따라 대한교통학회에 별도 용역토록 하였다.

2003. 7. 4. 연구용역 최종 공청회 자료에서 분기역이 오송·천안·대전 3개 대안으로 검토되었으나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복복선건설 추진과 공사비 산정, 편익 산출, 교통수요 오류사항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의 시정을 제기하며 공청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2003. 8. 7. 공청회 무산과 관련 건교부장관 면담시 공청회 자료의 허구성 및 오송분기역 우월성, 앞으로 추진방침에 대해 표명할 것을 요구하자 「분기역 선정은 신행정수도 입지결정과 연계 선정」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오송분기역 유치를 위하여 2003. 1. 10. 대통령 당선자에게 탄원서 제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 지역국회의원, 오송유치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과 유치운동 전개 및 시·군 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기타 도계조형물 이용한 홍보물 38개소, 플래카드 256개소 제작·게첨 등 민·관이 뚝뚝 뭉친 결과 2003. 11월말 완공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정부연구용역 보고서에 「복복선건설 완전철회, 공사비·통행수요 천안보다 우월」 등 충북주장의 반영과 「분기역 선정은 신행정수도 입지결정과 연계 결정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부에서는 2004. 8. 11. 신행정수도 입지에정지를 「연기·공주」로 최종 확정 발표하였고, 2004. 10. 14.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보완용역을 발주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에서는 분기역 선정 평가절차를 수립, 2005. 1. 20. 분기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5. 3.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기역 선정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가장 인접한 관문역으로서 오송분기역의 타당성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과정의 객관성·공정성·합리성 확보를 통한 분기역 평가결과의 정당성 및 수용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객관적 평가절차에 중점을 두고 기존 연구진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분기역추진위원회, 분기역평가기준선정위원회, 분기역평가단)을 운영키로 하고, 평가준비 및 시행단계의 투명성을 최대 과제로 삼아 분기역 선정의 최종결정을 충청권 3개 지자체가 수용해야 한다는 사전합의를 도출하였다.

분기역추진위원회에서는 분기역평가관련 5개 기본평가항목(국가 및 지역발견효과, 교통성, 사업성, 환경성, 건설의 용이성)을 확정하였으며 분기역평가 기준선정위원회에서는 19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확정하였다.

2005. 5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75명(5개 분과별 각 15명)으로 구성된 분기역 평가단이 구성되었으며 2005. 6. 28.~6. 30.까지 2박 3일간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건설경영연수원(충북 충주 소재)에 합숙하면서 평가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75명의 평가단 중 호남권 3개 시도의 15명과 충남 평가단 5명 등 총20명이 평가를 거부하며 중도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 나머지 55명의 분기역평가단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결과 평가를 지속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평가결과 천안·아산역 65.94점, 대전역 70.19점, 그리고 오송역이 87.18점을 획득, 오송역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최종 결정되어 충청도민들의 오랜 숙원해결에 종지부를 찍었다.

(3) 경부·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건설

2005. 6. 30.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확정후,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 오송·오창 등 대단위 개발사업 촉진과 지역발전을 감안, 4홈 10선의 고속철도 역사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는 한편, 2010년말 오송역 개통에 대비 역세권 개발과 오송 제2산업단지사업 등 주변 교통인프라 구축 등 모든 준비를 착실히 추진중에 있다.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은 2006. 8월 확정되고 오송~목포 전구간 기본설계는 2006. 11. 30.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오송~광주구간은 2015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순차적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나. 철도망 확충

(1) 충북선 복선 전철과 연계한 중앙·태백선 복선 전철 사업

1996년 타당성 완료후 1997~2004. 12월까지 총 사업비 2,757억원을 투입한 조치원~봉양(115.0km)간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2005. 3. 30. 개통식을 계기로 철도운송체계의 혁신 및 수송능력이 강화됨은 물론 북부지역 관광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전철화가 완료됨에 따라 열차운행속도가 향상되고 급수·급유가 필요없는 등 친환경적이며, 안전성·편의성으로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충북선은 국토중심부에서 경부선과 중앙선과의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동서횡단철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등을 통해 유럽까지 갈 수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세계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통해 강원권, 경북 북부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X자형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철도망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제천~도담(17.4km)간 기존 단선전철을 2001~2010년까지 2,830억원을 투입하여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1998년 타당성조사 완료 후 2007년까지 1,853억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천~원주(41.1km)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후반기(2010~2019)사업에 계획된 것을 우리 도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하여 전반기 계획으로 앞당겨 2003년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1조480억원을 투입 2012년 완공할 계획이다.

(나) 태백선 복선전철사업

제천~쌍용(14.3km)간 기존 단선전철을 2002~2011년까지 3,433억원을 투입하여 복선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후 2007년까지 총 660억원을 투입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 증부내륙선(이천·여주~충주~문경)단선전철사업

이천·여주~충주~문경(95.8km)간 철도건설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후반기 사업(2010~2019)으로 책정되었으나, 이를 앞당겨 조기 건설코자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06년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조1,659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라) 천안~괴산~문경 단선전철사업

천안~괴산~문경(100.1km)간 단선전철사업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중장기 검토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않고

있어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거쳐 2015년까지 총사업비 1조5,916억 원 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1) 지난 10년간 청주국제공항 발자취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청원 내수 입상리 일원의 674만㎡의 부지 위에 활주로 2본(2,740×45m, 2,740×60m), 주차장 39,000㎡, 여객 터미널 22,406㎡, 계류장 52,000㎡의 규모로 1992년부터 751억 원 을 투자하여 중부권 거점공항 및 수도권 대체공항을 목표로 1997. 4. 28. 개항하여 현재 청주국제공항은 연간 항공기 140천회, 315만명의 여객과 37,500톤의 화물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개항 당시 국내선 2개 노선과(제주 일 5회, 부산 일 1회), 국제선 4개 노선(오사카 주 2회, 사이판 주 3회, 나고야 주 2회, 괌 주 2회)을 운항하여 왔으나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도 전에 IMF 등의 경제위기와 항공사들이 이익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1997. 12. 22. 청주~부산노선 운항중단을 시작으로 국제노선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1998. 2. 16.부터는 청주~제주간 노선이 1일 4회에서 1일 2회로 줄어들어, 공항으로서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2001. 3월 인천공항 건설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의 존폐위기에 봉착한 도를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 지역사회단체 등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제노선 유치에 노력한 결과, 2001. 3. 25. 중국 동방항공사의 청주~상해노선 주 3회를 시작으로, 3. 29. 청주~제주 노선 주 5회 증편운항, 2001. 4. 21. 청주~심양노선 주 3회 등 국제노선을 개설하였고, 2003. 7. 13. 대한항공에서 청주~상하이간 주 3회, 7. 18. 대만 원동 항공에서 청주~카오슝간 주 2회, 7. 19. 대한항공에서 청주~방콕간 주 2회, 8. 2. 만다린항공에서 청주~타이페이간 주 3회를 취항하는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에 불어 닥친 조류독감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방콕, 대만, 카오슝 노선이 중단되어 제주, 상해, 심양노선만을 운항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2005. 2. 2. 전국 최초로 공항활성화 전담팀(1담당 3명)을 구성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단순히 우리 지역 뿐만 아닌 충청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충청권 3개 시·도 공조체제를 구축키 위해 항공관계자,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등의 장으로 구성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2005. 5. 6. 공항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는 공항활성화를 위한 4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개항 이후 그 동안의 활

성화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공항활성화를 위한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3회에 걸친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주국제공항내 여유부지를 활용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에 노력한 결과 2005. 4. 7. LG항공기 정비공장을 착공하게 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의 출범을 지원하여 청주↔제주노선을 1일 2회 취항(2005. 8. 31)케 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에게 다양한 항공사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도에는 제주 간 국내선 1일 12회 운항과, 북경, 상해, 심양, 홍콩, 남녕, 하노이 등 6개의 다양한 국제노선을 운항하여 이용객 1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 행정중심도시 관문공항으로 자리매김 해 나가고 있다.

(2) 편의시설 확대 및 이용객 확충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내 관광안내소 설치 및 안내원을 상주 근무시켜 이용객의 여행 및 관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으며 화장실 개선, 충북·충남·대전 특산품 코너 설치, 면세점·은행 입점, 인터넷방 개설, 약국·스넥코너 설치 등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다시금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도권, 대전·충남권, 대도시권 중심의 이용객 확충을 위하여 서울 지하철 역사에 청주국제공항 벽면조명광고물 설치와 시외버스 측면을 활용한 취항노선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한·영·중·일 4개 언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외국 항공사·여행업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또한 2007년 11월 첫 취항을 시작한 청주~베이징 노선의 안정적인 탑승률 제고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북경 현지에서 관계기관·항공·여행업 종사자 등 450명을 초청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 주요언론인 CCTV, 북경만보, 여행방송 등에 상세히 소개되기도 하였다.

<표 2-6-5>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감 현황

구 분	연간 처리능력	실 적			처리능력대비 이용률			
		연도	국내선	국제선	계	국내	국제	계
활 주 로	140천회/연	97년	2,972	423	3,395			1.73%
		01년	3,370	768	4,138			2.11%
		02년	3,928	550	4,478			2.28%
		03년	4,815	872	5,687			2.90%
		04년	5,706	916	6,622			3.38%

구 분	연간 처리능력	실 적			처리능력대비 이용률			
		연도	국내선	국제선	계	국내	국제	계
이용객수 (명)	315만명/연 (국내 189) (국제 126)	05년	6,084	1,001	7,085			3.61%
		06년	7,358	1,510	8,868			4.52%
		07년	7,736	1,550	9,286	-	-	4.74%
		97년	364,547	6,196	370,743	19.29%	0.49%	11.77%
		01년	549,112	56,996	606,108	29.05%	4.52%	19.24%
		02년	592,558	41,508	634,066	31.35%	3.29%	20.13%
		03년	686,671	74,477	761,148	36.33%	5.91%	24.16%
		04년	744,101	77,158	821,259	39.37%	6.12%	26.07%
		05년	756,220	101,049	857,269	40.01%	8.02%	27.21%
		06년	865,815	133,748	999,563	45.81%	10.61%	31.73%
		07년	871,551	160,933	1,032,484	47.37%	11.41%	31.77%
		97년	3,260	31	3,291	10.19%	0.56%	8.78%
		01년	16,778	2,894	19,672	52.43%	52.62%	52.46%
		02년	18,905	473	19,378	59.08%	8.60%	51.67%
화물수송 (톤)	37,500톤/연 (국내 32,000) (국제 5,500)	03년	20,848	2,172	23,020	65.15%	39.49%	61.39%
		04년	18,219	3,074	21,293	56.93%	55.89%	56.78%
		05년	12,658	1,390	14,048	39.56%	25.27%	37.46%
		06년	12,141	1,672	13,813	37.94%	30.40%	36.83%
		07년	11,795	1,720	13,515	36.86%	31.27%	36.04%

(3) 국제노선 유치 등 노력으로 이용객 103만 돌파

이용객 증대와 국제노선 유치가 공항활성화의 최대 관건임을 인식하고 일본·동남아 등 근거리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300인 이하 항공노선을 청주국제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국회·항공사 등에 전달하였으며, 신규 국제노선 개설을 위한 항공사 및 여행사 간담회 실시, 127개 지역여행사로 구성된 “충청연합투어”를 통한 전세기 유치 등에 노력한 결과 1년 동안 10개의 국제노선이 운항 되었으며 계류장을 33천㎡ 규모에서 52천㎡로 확장하여 A-320 항공기 5대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도록 등 공항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향상시켰다.

또한 충청권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및 수도권남부, 강원남부, 전북북부 등 청주

국제공항으로부터 2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전철의 천안~청주공항간 연장운행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공항 배차시간을 2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하고, 신탄진행 1일 12회, 가경터미널행 1일 24회 증회 운행 및 서울(남부, 강남), 대전(동부), 천안행 직행버스 운행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을 확충시켜 2007년 말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100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앞으로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연계 청주국제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계류장 확장 등 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요 도시 취항을 통하여 중국·동남아 특화공항으로 육성해 나가는 동시에 다각적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 주민의 항공편의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2-6-6> 2007년 청주국제공항 항공노선 운항 현황

구 간	운항편	취항일	취 항 항공사	공급석	여객수	비중 (%)	탑승률
계	9,286			1,356,889	1,032,484	100	76.1
제주	일12회	'97. 4월	대한,아시아나,한성	1,112,578	871,551		78.3
상해	주9회	'00. 7월	대한·동방항공	129,800	67,943	42.2	52.3
홍콩	주2회	'07. 2월	홍콩항공	58,220	52,788	32.8	91.0
심양	주1회	'01. 4월	중국남방항공	24,389	17,793	11.1	73.0
북경	주2회	'07.11월	아시아나	5,664	3,272	2.0	57.8
난닝	주2회	'07.12월	심천항공	500	399	0.2	80.0
장사	주2회	6~9월	남방·심천항공	6,805	5,161	3.2	75.8
심천	22편	1~2월	중국심천항공	3,658	3,270	2.0	89.3
항주	59편	1~3월	중국동방항공	9,255	5,271	3.3	57.0
정주	6편	1~2월	중국남방항공	1,106	931	0.6	84.2
타이페이	2편	2월	트랜스아시아	388	341	0.2	87.9
태원	4편	7월	중국동방항공	632	524	0.3	82.9
마닐라	38편	1~8월	에어필리핀	3,894	3,240	2.0	83.2

< '07년 청주공항활성화 추진 주요활동 >

- ① 민간차원의 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출범('07. 4. 9)
 - 도내 사회·단체 대표(경제, 언론 등) 47인, 10개 분과위원회 활동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앙대책위원회 발족('07. 5. 30)
 - 충청권 출신 재경인사 41명으로 구성
 - 각 단체별 충청권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 청주국제공항 홍보위원 위촉 : 112명('07. 8. 31)
 - 충청권 모범택시협의회 간부(대전 20, 충남 51, 충북 41)
 - 건설교통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시책 건의('07. 5. 30)
 - 인천공항의 300인 이하 중형기 노선 청주공항으로 배분 등 3건
 - 청주국제공항 취항노선 시내버스 광고 실시
 - 청주 시내버스 24대, '07.10.18~1년간
- ② 청주국제공항의 장점 중점홍보
 - 도정소식지 3월호 청주국제공항 홍보('07. 3.)
 - 월간자치행정 5월호(뒷면) 청주국제공항 홍보
 - 고속버스(100대) 차량 후면 홍보물 부착('07. 7.)
 - 수도권 주요지하철 역사 내 벽면조명광고(12개소)
 - 충청권 일간지 홈페이지 배너 광고(11개사) : '07. 9~11(3개월)
 - 도내 및 대도시 LCD 전광판 활용 홍보 동영상 표출 : 16개소
 - 언어권별 청주국제공항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4,000부)
 - 항공사·여행사·이용권역내 지자체 등에 배포
 - 추석명절 귀성객 대상 청주국제공항 홍보
 - '07. 9. 22~9. 26(5일간), 도내 주요IC 리플릿 배부
 - 북경노선 개설 및 청주공항 운항노선 홍보현수막 게시(100개)
 - 외국항공사에 청주국제공항 소개 이메일 발송(240개사)
 - 외국항공사 한국지사 방문 청주공항 장점 소개(10개사)
 - 청주 시내버스 측면 청주공항 홍보 스티커 부착(30대)
 - 북경 공항 내 청주공항 동영상 광고
 - LCD TV 140대 : 11. 9~11. 29(3주간)
 - 여행전문지 Travel 저널(11월호) 게재
 - 북경비즈니스그룹 초청 팸투어 : 11. 7~11. 10(22명)
 - 청주국제공항 북경 설명회 개최 : 12. 6(목) 16:00

- 원주 시내버스 옆면(와이드칼라) 광고(30대)
 - '07. 12월 ~ '08. 1월(2개월)
 - 도 관광홍보책자 “이야기 따라가는 여행길”에 게재
 - 전국 시·도지사 “뉴스 레터('08. 1월호)”에 청주공항 홍보내용 게재
 - 2008년 충청북도 투자유치 캘린더 제작 시 게재
 - 도내 기업체 대상 홍보동영상 방영 협조(19개사) : 12월
- ③ 청주국제공항 개항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문공항으로 위상정립 계기 마련
 - 공항활성화 실천의지 확산 및 청주국제공항의 대내·외 홍보
 - 마라톤대회('07. 4. 21), 기념식('07. 4. 27), 축하 음악회('07. 4. 28)
- ④ 신규노선 개설로 국제노선 다변화
- 대한항공사에 운수권 배분노선 취항 건의('07. 1. 19)
 - 중국 항공사(동방, 남방)와의 간담회 개최('07. 2. 23)
 - 말레이시아 FAX항공사 관계자 래도 및 노선 협의('07. 3. 22~3. 23)
 - 베이징 노선 개설 협의를 위한 아시아나 본사 방문('07. 4. 5)
 - 베이징 노선 개설을 위한 중국국제항공사(CA) 방문('07. 4. 11~4. 17)
 -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공포('07. 4. 13)
 - ※ 대전시 조례 제정(9. 19), 충남도 2008년 제정 추진
 - 말레이시아 FAX항공사 방문 노선개설 협의('07. 5. 22~5. 25)
 - 베이징 노선 개설을 위한 중국국제항공사 방문('07. 8. 13~8. 19)
 - 말레이시아 관광부 차관 지사님 예방('07. 9. 13)
 - 교류협력 강화 및 청주공항~쿠알라룸푸르 간 노선개설 협조
 - 일본 구마모토노선 개설을 위한 관계자와의 업무협의('07.10.11)
 - 북경비즈니스 그룹 초청 팸투어('07. 11. 7 ~11. 10)
 - 청주국제공항 북경 현지설명회 개최('07. 12. 6)
- ⑤ 국내 여행업자 초청 팸투어(Familiarzation Tour) 실시
- 유채꽃 행사 연계 여행업자 초청 : 25명('07. 4. 11~12)
- ⑥ 해외 관광박람회·관광전 참가 청주공항 홍보
- 말레이시아 관광박람회('07. 1. 19~21/페낭)
 - 한국국제관광전('07. 6. 7~6. 10), 홍콩 국제관광전('07. 6.14~6.17)
 - JATA 세계여행전('07. 9. 13~17), 동아시아 국제관광박람회('07.10.18~21)
 - 중국제남국제관광전('07. 10. 31~11. 5)

⑦ 청주공항 활성화 국제세미나, 토론회 개최

- 신국토 중심성 강화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기능과 역할
 - 300여명,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내 컨벤션 센터('07. 6. 28)
- KBS 대전방송 『이영애의 이슈와 현장』 '07. 11. 7(수) 22:00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주제로 충청권 3개 시·도지사 토론회
- KBS 청주방송 『이슈와 현장』 '07. 12. 12(수) 10:30
- 청주국제공항 경쟁력과 국제노선 확충방안 토론회
 - '07. 12. 13(목) 14:00 주최 : 충청리뷰, 미래도시연구원
- MBC 이슈토론 『청주공항 위기인가 ? 기회인가 ?』 '07. 12. 14(금) 13:00

라. 물류·유통 거점기지 육성

물류단지개발은 국토해양부의 전국적 물류유통망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제1차(1997. 10), 제2차(2002. 2)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과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고시함으로써 단지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1)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물류거점시설을 5대 권역으로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중의 하나로 규모는 482천㎡(충북 갈산 62, 충남 웅암 83)이며, 총 사업비 2,008억원을 들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될 계획으로 화물의 집하, 포장, 보관, 통관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이 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건설 중에 4,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900억원의 소득유발 효과, 3,2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으며, 완공 후에도 2,500여명의 상시고용 효과와 오창, 오송제2산업단지 및 청주국제공항과 연계된 국제물류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본 사업은 1999. 8월 694천㎡의 규모로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 신청자가 없어 2003. 8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동년 12월 한국복합물류 등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신청하여 2004년 1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중부복합물류(주)로 지정되었고, 민간시설(화물기지)은 실시설계 승인되어 2007. 5. 30. 공사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지원시설인 진입도로(L= 0.485km)는 2006. 12. 21. 사업시행자 및 전면책임감리 용역자가 선정되어 2007. 1. 8. 공사 착공하여 65%공정을 보이고 있고 상수관로 매설공사(L= 11.015km)는 2005. 11. 18. 착공하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입철도(L=2.91km)공사는 2006. 11. 6. 노반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노반 및 레도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50%공정을 보이고

있어 2009년도 복합화물터미널 완공에 맞추어 지원시설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2) 음성 물류단지 준공

1998. 7. 2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에 “음성물류단지” 지정신청이 접수되어, 1998. 12. 31 유통단지로 지정되어 200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분양수요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어려움 속에서 2003. 12월 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되어, 2004. 7. 9. 실시계획승인이 되었으며 2005. 2. 22.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2007. 6. 30. 사업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물류단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3) 제천 물류단지 조성

2003. 4. 16. (주)장평으로부터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60-4번지 일원에 “제천물류단지”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2003. 12. 31. 물류단지로 지정되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007. 10. 8. 물류단지 지정변경 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영향평가(교통·재해·환경)가 완료되어 2008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제천물류단지가 조성될 경우 화물의 효율적인 집하 및 일괄수송 실현 등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6-7> 물류단지 현황

단 지 명	위 치	규모(사업비)	주 요 시 설
음성 물류단지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283천㎡(382억원)	집배송센터, 농축산물 물류센터, 화물터미널 등
제천 물류단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61천㎡(261억원)	"

※ 음성물류단지 2007. 6. 30. 사업준공

2.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가. 교통시책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생활권의 광역화로 안전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화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는 고속도로, 국도 건설 등 국책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도 및 시·군도의 지속적인 확·포장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농촌버스의 서비스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중심기능 회복, 주차시설 확충과 주·정차질서 확립,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자동차 증가추세

자동차의 보유대수는 2007년말 553천대로 2006년도 대비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비사업용 차량이 528천대, 승용차가 372천대로 자가용 차량 증가와 더불어 사업용 차량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6-8> 자동차 증가추세

구분	2006		2007	
	대수	증가율(%)	대수	증가율(%)
계	531,667	4.1	553,427	4.0
사업용	23,963	2.1	25,169	5.0
비사업용	507,704	4.2	528,258	4.0
(승용차)	(353,772)	(5.3)	(371,558)	(5.0)

(2) 대중교통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도모

1990년 이후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도시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대중교통 수송 부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교통난 완화와 도내의 이동편의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위하여 12시군은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2006~2011)을 수립하였고 도는 2007년 지능형교통체계(ITS)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 이용정보 제공사업, 시외버스 지능화 사업, 시내버스 지능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공영버스 확충 등을 위하여 매년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표 2-6-9> 버스업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재정지원액	86	94	130	175	242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추진

지금까지의 교통정책이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 반하여 오늘날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과 동시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인간중심의 교통복지정책이 요

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내 12시군은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하반기에는 본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이며,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2007년까지 17대의 저상버스를 보급하였으며, 승강설비가 갖춰진 장애인용 승합차 등 특별 교통수단을 2010년 45대, 이후 45대 총 90대를 도입·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표 2-6-10> 저상버스 도입 현황

(단위 : 대)

	계	2005	2006	2007	비고
저상버스	17	3	6	8	청주(12), 충주(3), 제천(2)

(4)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가) 사업용자동차 면허

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면 개방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면허업종을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구역도 점차적으로 폐지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용자동차의 규모를 적정화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운임요금도 단계적으로 자율화 할 예정이다.

(나) 노선버스 운행

2007년말 현재 시외직행버스 358개, 시외고속버스 1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지역에 시내버스 506개, 농촌 및 산간지역에 농촌버스 333개 노선에 정기적으로 노선버스를 운행하여 주민교통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표 2-6-11> 사업용 자동차 면허(등록) 현황

차종별	구분	업체 수	면허(등록) 대 수	차종별	구분	업체 수	면허(등록) 대 수
합	계	682	23,443				
고속버스		1	92	법인택시		61	2,690
시외버스		5	512	개인택시		-	4,349
시내버스		10	538	일반화물		426	6,355
(좌석)	(6)	(81)		개별화물		-	2,219
농어촌버스		7	170	용달화물		-	2,421
(좌석)	(2)	(16)		특수여객자동차		81	130
전세버스		68	1,283	대여자동차		23	2,684

※ ()내서는 숫자에 포함

<표 2-6-12> 사업용 버스 노선현황

구 분	업 체 수	노 선 수			
		계	일 반	직 통	고 속
계	23	1,211	1,132	65	14
시외고속버스	1	14	-	-	14
시외직행버스	5	358	293	65	-
시 내 버 스	10	506	506	-	-
농 어 촌 버 스	7	333	333	-	-

3.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가. 교통안전대책 추진

(1)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7~2011) 추진

충청북도에서는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5년 단위(2007~2011)의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기간동안 2006년 교통사고 사망자 270명을 기준으로 매년 5%씩 감축을 목표로 2011년까지 201명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이에대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많은 지점 144억원, 위험도로 개량 1,935억원, 노후교량 개·보수 80억원, 교통안전 표지 확충 63억원, 신호시설정비 확충 102억원, 도로조명시설개선 53억원 등 2,3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운수종사자 교육

<표 2-6-13>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단위 : 명)

과 정 별	대 상 자	교육인원	주 관 단 체
계		19,206	
신 규 채 용 자 교 육	신규채용운전자	402	교통연수원
보 수 교 육	운 전 자	18,720	"
교 육 훈 련 담 당 자 교 육	교육훈련담당자	84	"

1990년도 이전에는 지역별로 순회하며 교육하였으나 1990. 5월 교육전담기관인

사단법인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전자 친절운동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관광객 및 도민 교통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운송질서 확립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가) 자동차운송질서 확립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되면서 양질의 대중교통 수단을 원하고 있으나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운행질서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러한 국민의 일상적인 교통환경을 파악하여 명랑하고 편리한 주민위주의 생활교통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 교통물류팀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733건을 접수 처리하였다.

또한 2007년 2차례에 걸쳐 도내에 운행중인 모든 자동차에 대한 도, 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자동차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였다.

<표 2-6-14> 교통 불편 신고 처리현황

구 분	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화물)	기타
계	733	284	80	361	3	5
참고,안내	58	15	23	17	3	-
시 정	320	128	39	148	-	5
경 고	9	5	2	2	-	-
운행정지	-	-	-	-	-	-
면 직	-	-	-	-	-	-
과 징 급	115	44	5	66	-	-
과 태 료	78	16	6	56	-	-
불문처리	153	76	5	72	-	-

(나)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

2007. 12. 31. 현재 비사업용 자동차 총 대수는 528천대로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추진, 2007년도 과태료 부과대상 231천건 등 총 245천건을 단속하였다.

도내의 주차장은 31,672개소에 351,242면으로서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66%정

도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주차장확보를 통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에서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표 2-6-15> 주차장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면수)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이 면 도 로 주차구획선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31,672	351,242	253	13,464	668	39,494	30,751	298,284	85	2,562

(다) 불법 주·정차 단속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에 따라 1가구 1차량 시대가 도래되어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하면서 차량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운전자의 주·정차 질서의식은 이를 따르지 못하여 도심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교통소통 장애, 사고위험, 주민들의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과 자율참여, 이에 협조하기 위한 주민자치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각적인 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표 2-6-16>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계	과 태 료 부과대상	건 인	출석고지서 발 부	법원판결의 회	이의신청 면 체
2002	106,736	102,824	3,329	59	-	524
2003	133,508	131,098	11,359	78	-	2,332
2004	185,114	171,860	9,659	64	-	3,531
2005	222,103	216,285	9,532	81	-	5,768
2006	219,989	210,409	9,761	79	572	9,501
2007	244,896	231,000	8,810	20	1,144	13,876

우리 도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히 실시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거지 차고확보율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주차난 해소 차원의 주차장 확보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모든 차량은 주차장이 아니면 주차할 수 없다는 주민의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청주시, 충주시 및 제천시 등 교통 혼잡지역과 상습 불법 주·정

차지역에 125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장비를 현대화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였고, 단속인력 절감 및 단속 관련 민원을 크게 줄였다.

나. 교통영향평가

(1) 개요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미리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교통유발원에 대하여 교통측면에서의 영향을 사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시설로 인한 주변도로 등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평가대상, 평가절차, 사후관리,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총체를 교통영향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2)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각각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시설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충청북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호선)을 포함하여 모두 40명으로 구성되며, 임명직 위원(공무원) 2명, 위촉직 위원(교수 10, 전문가 26, 시민사회단체 2) 38명이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과 시·도지사가 추천 등 무작위 선정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는 10인의 위원으로 운영되며, 회의참석대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교통영향심의 실적

IMF지원체제 이후 경제활동의 위축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교통영향평가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심의요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심의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2-6-17> 연도별 교통영향 심의실적

(단위 : 회/건)

연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심 의 실 적	19/29	29/55	21/42	23/34	28/54

※ 주 : 충청북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실적임

(4) 향후 전망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86. 12. 31)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다가, 1999. 12. 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되어 2001.1.1.부터는 새로운 통합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강화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 등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한 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간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당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하고, 그 심의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2008.3.28) 되었으며, 1909.1.1.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다.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1) 개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는 대도시권의 심화되고 있는 광역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기간교통시설비의 일부를 충당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대도시권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02. 1. 10.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를 2002. 2. 8.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부과대상 지역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인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권역이 있으며, 대전권에는 대전광역시, 충남의 공주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 충북의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이 포함되어 있다.

(3) 부과대상 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①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④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①~③항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

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⑥기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건축사업)이다.

(4) 부담금의 감면

부담금의 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건설사업 중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등이며, 부담금의 경감(50%)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5) 부담금의 산정기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경우 「 $\{1\text{m}^2\text{당 표준개발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개발면적} \times \text{용적율} / 200\}$ - 공제액」이며 표준개발비는 국토해양부 고시금액이다.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이외의 시설과 20세대이상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사업의 부담금 산정은 「 $\{1\text{m}^2\text{당 표준건축비} \times \text{부과율} \times \text{건축연면적}\}$ - 공제액」이다.

(6) 부담금 부과

2007년도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총 83건에 7,987,890천원을 부과하였다.

(7) 부담금의 용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도로법에 의해 지방도 및 시·군도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써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시·도 특별회계 부담금의 10/100범위 안에서 사용)에 사용할 계획이다.

제5절 건축 및 주거문화 창달

과거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무질서하고 양적으로 건설되었던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과 함께 주거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거주 주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풍요로운 주거공간 조성과 함께 도시 기능·미관 개선을 위한 우수한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유도하고 도·농의 격차 해소로 정주하는 복지농촌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주택건설 및 주거문화 개선

가. 주택건설 및 공급

지속적인 주택건설 및 공급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자연증가 및 핵가족화에 의한 주택수요의 증가로 주택의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92~2002년까지 2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여 총 207,856호를 건립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0,942호를, 2004년도에 23,887호, 2005년도에 15,754호, 2006년도에 17,934호를 건설하였다.

또한 2007년도에는 13,000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공공부문은 3,770호를 건설하였으며, 민간부문은 14,087호를 건설하여 17,857호의 주택을 건립·공급하였다.

그 결과 2007년말 현재 재고 주택수는 481,067호로 주택부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나. 주택건설계획 및 삶의 질 향상

2008년도에는 총 12,000호(임대주택 3,100, 분양주택 8,900)의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도 주택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

가. 사업추진

'89. 4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정에 따라 2000년까

지 속칭 달동네, 산동네로 불리는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을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균형 있게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융자지원과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소요사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청주 사직1지구 외 19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89~'07)의 추진상황을 보면 청주시·충주시·제천시의 총 39개 지구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소규모 주차장, 공원 조성 등 도로기반시설 설치 및 14,900여호의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2005년부터 실시한 제2단계 사업구역 8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완공하고 7개 지구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 추진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 공공기반시설 정비·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 동안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었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3. 7. 1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2개 지구에 총439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8개년간 총사업비 274억원을 8개 지구에 추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상시투자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3. 농촌 주거환경 개선

가. 농촌주택개량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중인 농촌주택개량은 우리 도내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후·불량주택을 1976~2007(31년) 동안 41,834동 개량하였다. 주택개량 사업추진시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농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풍의 콘크리트, 평스라브 위주의 건축을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을 유도하고, 목책, 돌담, 생울타리형 등 나지막한 담장을 유도하여 목가적인 전원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2007에 400동을 개량·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도 509동의 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마을정비사업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1976~2007(31년)동안 489개 농촌 마을을 정비하였고, 편리하고 위생적인 정주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복지 농촌화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농촌의 생활여건도 점차 도시화됨으로써 각종 생활 오·폐수 발생이 날로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마을 단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1991~2006(14년)동안 152개소를 완료하여, 농촌의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7년에도 7개 마을에 안길 포장, 공동광장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 7개마을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살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마을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다. 농촌빈집정비

농촌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에 대하여 1997~2007(11년)동안 6,884동을 정비하여 풍요로운 농촌경관 형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도 500동의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코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라.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농기계 보급 확대에 대응하고 농번기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7개 마을에 설치, 도시적인 냄새를 지양하고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 재료사용과 이미지를 구현하여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주민화합 및 역량결집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9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마.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

농촌마을의 경관을 훼손하는 노후·불량 담장을 낮추막하고 자연친화적인 목책, 생울타리, 돌담 등으로 정비하여 농촌마을 고유의 넓고 탁 트인 개방감 확보와 포근하고 정이 넘치는 21세기 생동하는 녹색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사업은 2005년부터 26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2008년에는 5개 마을의 노후·불량 담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음으로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제7장 농업행정



제1절	농업정책	403
제2절	농업생산지원	416
제3절	농산물유통 개선	427
제4절	축산 및 수산	439
제5절	산지의 자원화	469
제6절	종자보급	493

제1절 농업정책

경제특별도와 함께 농정분야에서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WTO·FTA 등 농업개방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명품도 충북” 슬로건과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를 “① 명품브랜드 육성 ② 정예농업인 양성 ③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④ 어머니가 넘치는 농산촌 ⑤ 농업인 복지 향상”에 두고 적극 추진한 결과 충청북도 우수 농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제 실시, 중부권(괴산, 증평, 진천)고추 브랜드 통합, 청풍명월한우 롯데백화점 전 매장 입점 판매 등 「명품브랜드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친환경농업 특별상 수상, ‘고품질쌀 생산·유통대책추진’ 9년연속 최우수(우수) 입상으로 우리도가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였다.

또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확대조성(35개소), 영동 포도 캠벨 미국 첫 수출(10톤), 충북도↔(주)농협무역과 1천만불 농특산품 수출 MOU체결, 농특산품 해외관측전으로 수출 3억달러 달성 기반구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앙평가결과 전국 1위 달성,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 평가결과 전국 우수도 수상,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3개마을 입상, 제2기 신활력지역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대(5개군→7개시군), 마필·승마육성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경제특별도·농업명품도 山上마케팅 실시, 농업명품도 충북포럼 창립 및 시책설명회 개최 등 『가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산물 시장 개방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농업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1.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

가. 농업정보화지원센터 운영

21세기 미래 충북농업을 이끌어 나갈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지역에 정보화를 확산하기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농업 정보화를 도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농업 정보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농업정보화 지원센터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학·관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12개 시군과 12개 대학이 자매결연하여 자매결연한 12개 대학에 “농업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 컴퓨터 고장 수리 등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에 농가방문 교육 1,497명, PC점검 및 수리 415회,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관리 218농가의 성과를 거두었다.

나. 정보화 선도자육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PC활용능력을 갖추고 농업인의 정보화 지도를 담당할 열성을 가진 인력을 농업 정보화 선도자로 위촉하여 농업정보화의 확산 주체로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정보화 선도자 30명이 3,465회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교육을 보완·확대하여 농업인의 컴퓨터·인터넷활용 수준향상 및 정보화 무관심층 교육 참여 유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 생산 농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 42,490건 76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다.

2. 지역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

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2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8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8,930명을 선정하여 1,77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2007년도에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27명과 새로이 영농에 종사하고자하는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50명 등 77명을 선발 41억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특히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과 사후관리 지도를 실시하였다.

나. 쌀 전업농 육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 경영체를 확보하고 일정수준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 단위의 전업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쌀 전업농은 '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8,771명에 대하여 농기계 및 농지 구입자금을 보조·융자 지원하였으며, 영농규모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662농가에 179억원을 지원하였다.

3. 농어촌개발기금 용자 지원

농어촌개발기금은 농·축·수산업의 생산·저장·가공·유통분야 시설비 및 영농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품목을 중점개발 명품화시켜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도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농어민에게 저리로 용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기금의 용자 지원은 시설자금은 연리 1.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농촌지도자 및 일반농가는 5천만원 이내, 작목반 등 농어민 단체는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운영 자금은 연리 1.5%,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3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기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36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70농가에 90억원을 지원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7-1> 농어촌개발기금 용자실적

구	분	사업량(건)	사업비(백만원)		비율(%)
			계 획	실 적	
합	계	370	15,681	8,974	57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170	3,078	945	31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육성	57	1,168	510	44
	일반소득지원사업	143	11,435	7,519	66

4.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 자녀의 학자금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코자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6,330명에게 63억원을 지원하였다.

나.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농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7년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의 영유아,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2,198명에게 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375명에게 18억원을 지원하였다.

다.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250명에게 3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다.

5. 농외 소득원 확충

가. 농촌특산단지 조성

농촌특산단지는 농촌의 유희 노동력 및 부존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말 현재 47개 단지 216호가 참여하여 300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 소득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구축을 위하여 2002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지원대상 마을은 농촌관광 추진을 위한 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마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과반수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

○ 2개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 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각 마을의 가구 수 합계가 30호 이상이고 협정에 참여하는 각 마을은 마을

전체 가구의 과반수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면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기반시설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마을 당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충북지역은 총 18개 마을을 지정, 36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각종 농촌체험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표 2-7-2>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현황

마을명	대표자	참여가구	주요 프로그램	지정년도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탄방마을	윤용길	72호	도자기·숯체험	2007년
청원군 가덕면 계산리 말미장터마을	김영웅	35호	숲체험교실,임도마차타기	2007년
보은군 산외면 산대리 신개울마을	류재현	23호	쥐볼놀이, 별자리공부	2007년
옥천군 안내면 현리 신촌마을	이태헌	44호	달구지타기,디달방아체험	2007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비단강숲마을	정태연	42호	장승깎기, 짚공예	2007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원풍마을	진용희	100호	한지뜨기,고인쇄인출 자연염색	2007년
청원군 강내면 공현2리 연꽃마을	이상선	27호	연꽃관련 프로그램 어천대제,연일밥상	2006년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대원마을	서동명	28호	오리농기,반딧불보기	2006년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정안마을	박정규	24호	색이감자체험,짚공예	2006년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명심마을	이상배	30호	다슬기채취,별자리보기	2006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송전마을	강대운	25호	친환경농사체험,산나물채취	2005년
음성군 원남면 하당1리 당골마을	성원규	28호	야생화관찰,도자기체험	2005년
충주시 양성면 지당리 상대촌 마을	신문구	43호	두부만들기,새끼꼬기	2004년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고드미 마을	조관호	38호	전통생활문화체험 이영영어 울리기	2003년



마을명	대표자	참여가구	주요 프로그램	지정년도
보은군 회북면 쌍암3리 고석리 마을	이명주	23호	꽃감만들기,메주만들기	2002년
보은군 회남면 분저리 마을	이우열	19호	오리방사, 농사체험	2003년
음성군 음성읍 용산3리 용바위골 마을	오순철	35호	농사체험,장담그기	2002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2리 한드미 마을	정문찬	36호	삼굿구이,땃목타기,산촌유 학캠프	2003년

6. 농지의 보전 · 관리

가. 농지전용 상황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2007년도 농지전용은 4,255건에 1,793ha로 공공부문이 1,072ha(60%) 공장·주거시설 등 민간부문이 650ha(36%)이며, 농가주택 및 농어업용 시설로 전용한 면적은 71ha (4%)이다.

<표 2-7-3> 농지전용 현황

(단위:건/ha)

구분	계		허가 · 협의전용				신고전용	
	건수	면적	공공부문		민간부문		건수	면적
계	23,331	6,434	1,392	3,412	16,239	2,415	5,700	607
2003	4,199	1,123	294	653	2,765	365	1,140	105
2004	4,585	1,272	281	790	3,118	360	1,186	122
2005	5,199	922	236	358	3,610	438	1,353	126
2006	5,093	1,324	279	539	3,563	602	1,251	183
2007	4,255	1,793	302	1,072	3,183	650	770	71

나. 농지불법전용 단속

충청북도에서는 매년 상반기에는 시·도 교차단속, 하반기에는 시·군교차 단속

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189건에 35.6ha를 단속하여 이중 38건은 고발 조치하였으며 134건은 원상회복명령, 17건은 성실 경작토록 하였다.

<표 2-7-4> 농지 불법전용 현황

연도별	적발건수		조치결과					
			고발		원상회복명령		성실경작지시등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903	151.3	246	54.5	625	88.9	32	7.9
2003	221	34.7	51	13.3	166	20.9	4	0.5
2004	161	23.7	66	14.6	95	9.1	-	-
2005	145	21.2	33	5.9	111	15.0	1	0.3
2006	187	36.1	58	9.0	119	26.0	10	1.1
2007	189	35.6	38	11.7	134	17.9	17	6.0

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충청북도는 '92년말 경지정리지역과 농지집단화지역을 대상으로 61천ha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이후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는 등 수시로 조정·관리하고 있다.

<표 2-7-5>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단위 : ha)

구분	1992년	2006년	2007년		지정면적
			증감내역		
			지정 등	해제 등	
계	61,003.9	65,253.0	5,108.8	5,838.5	64,523.3
진흥구역	47,852.1	51,623.2	3,615.3	4,414.0	50,744.5
보호구역	13,151.8	13,629.8	1,493.5	1,344.5	13,778.8

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충청북도에서는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을 유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년 시·군별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표 2-7-6> 연도별 농지처분 현황

(단위 : 명, m²)

구분	2004	2005	2006	2007	비고
인원	135	147	461	623	
면적	389,629	336,189	1,253,192	1,521,781	

7. 농촌 생활환경 정비

가. 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 면지역에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지면을 제외한 정주권면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I 단계(1990~2004)사업기간 동안 2,108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II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7-7> 정주기반 확충 사업

(단위 : 면, 백만원)

시·군 별	사업비 계	I 단계 사업 (1990-2004)		대 상 면	II 단계 사업 (2005-2014)			2008 이후
		시행 면수	사업비		'05-'06년도 실적	2007년도 실적	2008 이후	
계	384,141 (36,862)	53면	210,821 (34,562)	57면	25면	31,902 (2,300)	25면 18,460	122,958
충주시	55,863 (5,570)	8	31,553 (5,260)	엄정,동량,신니,이류, 노은,금가,가금,양성(8)	3	5,009 (310)	3 3,036	16,265
제천시	26,769 (2,880)	3	17,719 (2,830)	금성,송학,한수(3)	2	2,149 (50)	2 1,375	5,526
청원군	73,214 (7,203)	13	36,933 (6,923)	부용,강내,옥산,북이, 남일,남이,강의,현도, 남성,미원,가덕,문의(12)	3	6,002 (280)	3 4,255	26,024
보은군	32,690 (1,900)	6	17,690 (1,900)	삼승,탄부,내북,외속리, 수한(5)	3	2,745 (-)	3 1,875	10,380
옥천군	36,752 (2,880)	5	21,732 (2,880)	동이,청산,이원,군북, 군서(5)	1	2,335 (-)	1 822	11,863
영동군	29,098 (3,015)	4	16,949 (2,865)	심천,황간,용산, 추풍령(4)	2	2,249 (150)	2 1,250	8,650
증평군	6,284 (40)	1	3,243	도안(1)	1	565 (40)	1 295	2,181

시·군 별	I 단계 사업 (1990-2004)				II 단계 사업 (2005-2014)				
	사업비 계	시행 면수	사업비	대 상 면	'05-'06년도 실적		2007년도 실적		2008 이후
					시행 면수	사업비	시행 면수	사업 비	
진천군	30,132 (2,392)	5	14,972 (2,232)	이월,덕산,초평,문백 광혜원(5)	3	2,509 (160)	3	1,574	11,077
괴산군	38,564 (4,434)	6	20,025 (3,894)	연풍,장연,청안,사리, 문광,불정(6)	3	3,396 (540)	3	1,714	13,429
음성군	36,860 (3,905)	6	18,420 (3,465)	생극,대소,삼성,감곡 원남,맹동(6)	2	3,039 (440)	2	935	14,466
단양군	17,915 (2,643)	2	11,585 (2,313)	대강,가곡(2)	2	1,904 (330)	2	1,329	3,097

※ () 내서는 농촌주택정비 용자금임

나.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등에 의한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1992~2013년까지 도내 45개 전원(문화)마을 조성계획으로 지구당 3년 내외, 10~30억원 정도를 지원, 총 8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2007년까지 총 26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3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다.

<표 2-7-8>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

(단위 : 백만원)

시·군별	2006까지 실적		2007년도 실적		2007 이후	
	지구명	사업비	지구명	사업비	지구명	사업비
계	26지구	64,204	3지구	1,893	16지구	23,750
충주시	금가, 동량 완오, 양성	8,753	달두루	500		
제천시	금성, 청풍 한수, 송학	10,618	애련	1,143		
청원군	복이, 강내 복일, 오창	9,758	인경	250		
보은군	내속, 마로	4,860				
옥천군	이원	2,553				
영동군	심천	1,316				
증평군	도안	2,759				



시·군별	2006까지 실적		2007년도 실적		2007 이후	
	지구명	사업비	지구명	사업비	지구명	사업비
진천군	이월	1,657				
괴산군	사리, 청안	6,383				
음성군	대소, 삼성 생곡, 감곡	11,508				
단양군	대강,가곡	4,039				

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기계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라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경작로를 확·포장함으로써 영농작업 및 농산물 판매·반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 이용률 및 영농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1995~2014년까지 827개 지구 1,859km를 사업대상으로 1,9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는 104.1km에 10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7년말 까지 총 1,131km를 완료하였다.

<표 2-7-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단위 : km, 백만원)

시·군별	총대상		2006까지 실적		2007년도 실적		2008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859.0	193,485	1,026.9	99,776	104.1	10,837	832.1	82,872
청주시	0.8	83	0.8	83	-	-	-	-
충주시	212.0	25,500	120.7	12,117	5.3	553	91.3	12,830
제천시	65.8	5,932	44.3	3,942	7.6	793	21.5	1,197
청원군	378.0	38,510	187.3	18,369	32.0	3,328	190.7	16,813
보은군	222.6	23,314	129.7	12,667	9.1	946	92.9	9,701
옥천군	113.7	12,802	72.8	7,260	4.9	506	40.9	5,036
영동군	89.0	10,096	54.7	5,395	5.1	531	34.3	4,170
증평군	44.4	4,475	24.7	2,373	8.5	886	19.7	1,216
진천군	235.4	23,938	127.3	12,058	9.9	1,034	108.1	10,846
괴산군	218.7	19,047	108.4	10,614	13.1	1,364	110.3	7,069
음성군	253.6	26,957	141.2	13,415	7.6	791	112.4	12,751
단양군	25.0	2,831	15.0	1,483	1.0	105	10.0	1,243

라. 오지종합 개발사업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1990~1999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37개면 681건에 75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단계는 2000~2004년까지 37개면에 845억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부터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32면을 대상으로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인프라 구축, 문화·복지시설에 종합적으로 투자하여 오지마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7-10> 오지종합 개발사업

(단위 : 면, 백만원)

시군별	사업비 계	1,2차 사업 (1990-2004)		대 상 면 (오지면 변경고시 37면→32면)	3차 5개년사업 (2005-2009)		2008 이후		
		시행 면수	사업비		'05-'06년도 실적	2007년도 실적			
					시행 면수	사업비	시행 면수	사업비	
계	241,995	37면	159,770	32면	37면	28,285	32면	15,473	38,467
충주시	27,175	4	17,144	소태,산척,살미,수안보(4)	4	3,289	4	1,943	4,799
제천시	23,042	3	13,404	백운,덕산,수산,청풍(4)	3	2,896	4	2,213	4,529
청원군	18,667	4	17,091	-	4	1,576	-	-	-
보은군	33,819	5	21,279	회북,회남,산외,내속리, 마로(5)	5	4,112	5	2,058	6,370
옥천군	15,888	2	8,756	청성,안내,안남(3)	2	2,073	3	1,457	3,602
영동군	41,024	6	25,977	용화,양산,상촌, 학산,매곡,양강(6)	6	4,934	6	2,913	7,200
진천군	11,648	2	8,745	백곡(1)	2	1,217	1	486	1,200
괴산군	31,815	5	21,391	청천,소수,감물,칠성(4)	5	3,682	4	1,973	4,769
음성군	16,267	3	12,971	소이(1)	3	1,610	1	487	1,199
단양군	22,650	3	13,012	적성,영춘,어상천,단성(4)	3	2,896	4	1,943	4,799

마.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면단위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을 다목적으로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가뭄대책, 소득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1994~2014년까지 549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9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07년도에는 24개소에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까지 423개소가 완료되었다.

<표 2-7-11>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시·군별	총 대상		2006까지 실적		2007년도 실적		2008 이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계	549	91,440	399	65,940	24	4,080	126	21,420
충주시	75	12,682	51	8,695			24	4,080
제천시	23	3,800	21	3,495			2	340
청원군	130	22,026	106	17,978	4	680	20	3,400
보은군	32	5,022	27	4,015			5	850
옥천군	29	4,438	27	3,950			2	340
영동군	27	4,186	23	3,473			4	680
증평군	5	828	3	592			2	340
진천군	15	2,484	13	2,131			2	340
괴산군	129	21,876	68	11,540	17	2,890	44	7,480
음성군	47	7,924	33	5,381			14	2,380
단양군	37	6,174	27	4,520	3	510	7	1,190

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지역 읍·면 지역중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을 가진 1개 법정리 이상의 소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의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에 희망과 활력 고취로 농촌사회유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4~2017년까지 90개 권역을 대상으로 6,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권역당 3~5년간 40~70억원이 지원되며, 2007년까지 12개 권역에 1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다.

<표 2-7-12>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단위 : 권역, 억원)

시·군별	총 대상		2006까지 실적		2007년도 실적		2008 이후	
	권역수	사업비	권역수	사업비	권역수	사업비	권역수	사업비
계	90	6,300	4	75	8	72.8	82	6,152.2
충주시	12	840	1	6.25	1	12.37	11	821.38
제천시	7	490			1	3.94	6	486.06
청원군	13	910					13	910.00
보은군	10	700			1	3.94	9	696.06
옥천군	8	560					8	560.00
영동군	10	700	1	6.25	1	17.75	9	676.00
증평군	1	70			1	3.94	-	66.06
진천군	6	420					6	420.00
괴산군	10	700			1	3.94	9	696.06
음성군	7	490	1	31.25	1	17.56	6	441.19
단양군	6	420	1	31.25	1	9.36	5	379.39

※ 연도별 권역수는 당해 연도 사업 시행 권역임(계속사업)

제2절 농업생산 지원

1. 식량생산

우리 도의 2007년말 경지면적은 125천ha이며 이 중 논이 58천ha(전국 대비 5.4%), 밭이 67천ha(전국 대비 9.4%)로 밭농사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최근 계속되는 재고 증가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하여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650ha를 감축하였으며, 고품질 벼 재배를 98%까지 확대 재배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질소질 비료 감축을 추진하여 표준시비량을 지난해 대비 10a당 1.8kg 감소한 9.2kg을 준수하였으며, RPC위주의 고품질쌀 계열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고품질쌀생산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2007쌀생산종합대책 평가」 결과 우수도를 달성하여 충북 농정사상 유례가 없는 9년연속 최우수, 우수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표 2-7-13> 식량생산 실적

(단위 : ha, 천톤)

구 분	연도별	2006		2007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계		68,961	338.1	69,136	320.7
미 곡		51,650	259.7	50,702	233.2
맥 류		84	0.2	134	0.3
두 류		10,635	16	11,123	18
서류(생서)		1,998	44.3	2,199	49.5
잡 곡		4,594	17.9	4,978	19.7

가. 미곡생산

(1) 생산실적

2007년도 미곡 생산은 50,702ha에서 247천톤을 생산키로 계획하였으나,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강우에 의한 일조 부족으로 임실율이 떨어져 당초 계획량보다 14천톤이 감소된 233천톤을 생산하였다.

쌀 수급전망을 고려한 적정 벼 재배면적 유지를 위하여 논에 타작물 재배유도, 고품질 벼품종 확대재배, 지력증진, 적기이앙, 적기수확 등 고품질 재배방법의 개선 등을 통한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2) 주요추진실적

(가) 고품질 품종 확대보급

주식인 쌀의 양질미 선호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고품질 품종 확대재배를 위하여 정부보급종 공급, 자율교환을 위한 「종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벼 재배면적의 98%를 고품질 품종으로 확대 재배하였다.

(나) 벼 적정면적 유지대책 추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하여 논에 콩, 사료작물 재배시범사업 추진 등 논에 타작물 재배유도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650ha가 감소된 50,702ha의 면적을 유지하였다.

(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농약을 적게 쓰며 방제효과를 높이고 안전 농산물 생산과 경제적인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정밀 예찰 결과에 따른 적기, 공동방제를 지도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계도와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2007년에는 모내기이후 기상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적기, 적량 병해충 방제추진으로 206.2ha에 병해충이 발생되었으며 그 중 도열병은 45.5ha가 발생되어 2006년에 비해 32ha정도 증가하였고 문고병²⁾은 27.0ha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29% 감소하였다.

<표 2-7-14> 벼 병해충 발생 현황

(단위 : ha)

구 분	연 도 별			
	2005	2006	2007	
병	합 계	769.8	288.5	206.2
	소 계	61.3	93.1	74.6
	도 열 병	15.2	13.5	45.5
	문 고 병	44.6	79.2	27.0
	백 엽 고 병 (흰빛잎마름병)	-	-	2.1
	기 타	1.5	0.4	-
	소 계	708.5	195.4	131.6
총	이 화 명 총	1.0	1.5	2.0
	멸 구 류	2.4	2.4	0.3
	기 타	705.1	191.5	129.3

2) 문고병 : 잎짚무늬마름병

벼 병해충 방제는 식부면적의 3.4배에 해당하는 175천ha의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중심으로 기본 동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발생상습지에 대한 특별관리와 공동방제 사업비 2,795백만원을 지원 98천ha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였다.

<표 2-7-15> 벼 병해충 방제실적

(단위 : 천ha)

연도별	구분	식부면적	방 제 실 적			방제회수
			계	병	총	
2002		59	293	156	137	5.0
2003		56	304	138	166	5.4
2004		60	250	135	115	4.2
2005		55	224	105	119	4.1
2006		53	211	103	108	3.7
2007		51	193	96	97	3.8

농약 안전사용지도는 쌀을 비롯한 47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EPN³⁾ 등 38 종류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90. 9. 1부터 설정됨에 따라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 공무원, 농약판매상, 농협 등 34,083명에게 농약사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농약안전 사용기준 준수를 위하여 홍보책자, 리후렛, TV 간담회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방제복 '07년도에 20,121세트(666백만원)를 공급하여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농약 판매상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하였다.

나. 밭 작물 생산

보리는 쌀보리의 생산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두류는 콩 재배면적의 확대 로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감자, 고구마 등 서류는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잡곡은 웰빙·기능성 식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찰옥수수는 괴산, 옥천, 충주를 중심으로 1,881ha가 재배되어 전국 최대 재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3) EPN : 농약 성분의 한 종류

다.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실시

WTO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 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홍수방지 및 경관유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자 쌀소득등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2-7-16>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 호, ha,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농가수	계	면 적		지 급 액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2005		68,397	55,347	35,210	20,137	32,840
2006		69,486	56,292	35,972	20,320	38,966
2007		70,677	56,056	35,824	20,232	38,801

라. 친환경직불제 실시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표 2-7-17> 친환경 직접지불금 지급실적

(단위 : 호, ha, 백만원)

연도별	구 분	농 가 수	면 적	지 급 액
2004		1,504	1,038	696
2005		1,708	1,582	760
2006		2,863	1,920	873
2007		3,241	2,324	1,033

마. 친환경농업육성 확대

우리 농업의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고, 국토환경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에 부응한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을 위하여

여,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5개소, 담규제지역친환경농업육성 7개 시·군,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28개소, 친환경지역명품화작목육성 15개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개소에 9,730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친환경인증농가 3,589호에 대한 인증비지원에 1,076백만원, 친환경영농자재 12,000백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1,033백만원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총 15,257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으로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정성에 대한관심증가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도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2-7-18> 친환경인증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농 가 수(호)	1,981	2,142	3,419	4,080	4,740
재배면적(ha)	1,602	1,892	2,688	3,589	4,012
생산량(천톤)	50	61	82	92	108

<표 2-7-19> 2007년 친환경농산물 재배실적

구 분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인증면적(ha)	4,012	595	1,442	1,975
인증농가(호)	4,740	614	1,833	2,293

2. 농업기계화 촉진

가. 농기계 공급

농작업 기계화는 '70년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농기계 보유대수도 2007년도에 170,859대로 고령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의 여건 변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표 2-7-20> 농기계 보유현황

(단위 : 대)

기종별	구분	2007보유	호당대수
	계	170,859	1.94
경운기		51,658	0.59
트랙터		13,860	0.15
이앙기		19,750	0.22
관리기		30,527	0.35
콤바인		4,853	0.07
방제기		5,679	0.06
바인더		643	0.01
건설기		39,791	0.45
기타		4,098	0.04

※ 축산용 농기계 제외

나. 농기계 사후관리

'80년부터 읍·면단위의 농기계 수리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2007년말 공급업체 대형6개소, 중형77개소, 소형 108개소 등 191개소의 농기계 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12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순회수리용 차량을 이용하여 농번기 마을별 현지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수리가 불편한 오지마을에는 이미 지원한 수리공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체에서는 농번기 전후 마을단위까지 순회수리를 확대, 농민의 수리시간 단축에 따른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기계 수명연장을 통한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였다.

< 2007년도 농업기계 사후봉사 실적 >

- 지역 : 12개 시·군 103개 읍·면
- 기간 : 연 2회(1차 : 2007. 3. 19~4. 18, 2차 : 2006. 8. 20~9. 19)
- 참여업소 : 연 256개 업소(수리기사 : 연 496명)
- 기종별 수리실적 : 15,177(경운기 6,174, 트랙터 1,033, 이앙기 605
콤바인 641, 기타 6,724)
- 부품 교환액 : 426백만원(무상교환액 109백만원)

다. 농기계보관창고설치

농기계 공급이 증가하면서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95년부터 2007년까지 751개소 46,860평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였다.

3. 경지정리

가. 현 황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 농로를 영농 기계화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쌀 자급기반 확보와 농촌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6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1997년에 경지면적이 3ha 이상이고 경사도가 1/50 미만인 지구 49,033ha를 대상지로 정하여 2007년까지 44,798(91.4%)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대형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7-21> 경지정리 현황

(단위 : ha)

구분 연도별	논 면 적	대상면적	실 당 년	적 누 계	정리율 (%)
2005	60,916	49,859	226	43,892	88.0
2006	58,498	49,468	464	44,356	89.7
2007	57,098	49,033	442	44,798	91.4

나. 추진성과

1990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의 69%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부터 적극 추진하여 2007년까지 3,305억원을 투자, 44,798ha(91.4%)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사업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영농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 관개배수 체계의 개선으로 쌀 생산량 증가

<표 2-7-22> 시·군별 경지정리사업 내역

(단위 : ha)

구분 시·군별	논면적 (A)	대상면적 (B)	2007년까지 실적(C)	잔여면적 (D)	B/A (%)	C/B (%)
합 계	57,098	49,033	44,798	4,235	86	91.4
청주시	2,813	1,775	1,775	-	63	100.0
충주시	7,025	5,916	5,565	351	84	94.1
제천시	3,183	1,315	1,301	14	41	98.9
청원군	11,661	10,384	8,680	1,704	89	83.6
보은군	5,714	5,674	5,166	508	99	91.0
옥천군	3,256	3,119	2,864	255	96	91.8
영동군	2,760	2,199	2,199	-	80	100.0
증평군	1,427	1,024	969	55	72	94.6
진천군	6,246	5,568	5,434	134	89	97.6
괴산군	5,270	5,164	4,334	830	98	83.9
음성군	7,075	6,274	5,890	384	89	93.9
단양군	668	621	621	-	93	100.0

다. 향후 발전방향

미 시행한 4,235ha의 논에 대하여는 경지정리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기계화, 규모화, 현대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생산성 있는 농업기반확충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4. 발기반 정비

가. 현 황

밭은 전반적으로 도로, 용수, 배수시설 등 제반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요 소득 작목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생력화 농업이 당면 주요과제로 되고 있어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제고를 위하여 밭 종합정비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사업효과

시설농업 등 기술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발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가뭄에 대처하여 품질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기하고 경작로 개설로 생산품의 운반과정에서의 손상을 방지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며, 기계화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표 2-7-23> 발기반 정비 현황

(단위 : ha)

연도별	구분	대상면적	실 적		정 리 율 (%)	발 면 적
			당 년	누 계		
2005		9,190	125	2,609	28	67,246
2006		9,190	188	2,797	30	67,346
2007		9,190	113	2,910	32	66,965

<표 2-7-24> 발기반 정비사업 시·군별 내역

(단위 : ha)

시·군	발 면 적	대상면적	2007년까지 실적	잔여면적
합 계	66,965	9,190	2,910	6,280
청주시	1,385	10	10	-
충주시	8,848	1,981	351	1,630
제천시	8,107	1,190	455	735
청원군	6,869	295	51	244
보은군	4,490	994	401	593
옥천군	5,738	375	247	128
영동군	7,233	1,302	493	809
증평군	906	-	-	-
진천군	3,119	-	-	-
괴산군	7,748	1,174	234	940
음성군	7,131	352	123	229
단양군	5,391	1,517	545	972

다. 향후계획

도내 밭기반 정비의 대상면적은 9,190ha로써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도 봄마무리 사업에는 3,854백만원을 투입하여 3지구 113ha를 완료하였고, 2008년 봄마무리 사업은 4,526백만원을 투입하여 3지구 129ha를 완료하여 밭작물 소득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5. 농업용수 개발

가. 현 황

우리 도의 수리답 면적은 총 답면적의 85.4%인 50,004ha로서 전국 수리답률 79.2%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수리 불안전답 8,494ha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표 2-7-25> 수리답 분석표

(단위 : ha)

구 분	답면적	수 리 답			불안전답
		계	시·군	농촌공사	
총 북	58,498	50,004	17,524	32,480	8,494
	(100%)	(85.4%)	(35.0%)	(65.0%)	(14.6%)
전 국	1,084,024	859,040	326,749	532,295	224,984
	(100%)	(79.2%)	(38.0%)	(62.0%)	(20.8%)

※ 주 : 2006. 12월말 현재 통계임 (2007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나. 추진상황

우리 도는 미호천 유역 대규모 농업용수 종합개발 I, II 단계사업으로 1977~2010년까지 사업비 3,961억원을 투입 도수터널 6.2km, 저수지 13개소, 양수장 7개소, 보 1개소, 용수로 607km 등을 설치하여 15,984ha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3,992ha의 경지정리를 실시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여 I 단계 사업을 1989년에 완료하였으며, II 단계 사업중 대청댐 용수공급구역 3,573ha가 2005년도에 완료되었으며, 857ha에 용수공급을 위한 오창저수지 축조사업을 2005년도 착수하여 2008년 담수 및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07년 한 해 동안 안정적인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하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 일반농업용수 개발사업 9개 지구에 총 235.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보, 용수로,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의 기능향상을 위한 개·보수사업으로 48개 지구에 249억원을 투자하여 농경지 21,826ha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4개 저수지에 4.9억원을 투자하여 퇴적토사를 제거함으로써 담수 능력을 높이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절 농산물유통 개선

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 유통시설 확충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소비지로 신속하고 원활히 공급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유통시설 확충에 5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주산단지 위주로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출하시기 조절 및 신선농산물을 신속히 소비지에 공급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소비지 유통개선과 농산물 공동선별 규격화(소포장, 반가공 등)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1)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유통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을 도내에 82개소(저온저장고 62, 집하장 20 등)를 설치하였다.

<표 2-7-26>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사업량 (개소)	소규모유통시설설치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2006		78	5,000	-	1,200	2,800	1,000
2007		82	5,000	-	1,200	2,800	1,000

(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를 통해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코자 주산지별로 품목특성에 맞게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에 81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나. 유통기능의 활성화

(1)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상품의 브랜드화로 유통능률 향상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대량유통 및 투명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산물유통의 현대화를 실현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박, 참외, 배추, 무 등 품목에 대해 포장재 제작비 및 공동선별비에 15,37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7-27>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공급물량 (천상자)	규격출하포장재제작			
			계	국비	지방비	자담
2005		23,995	9,003	2,701	-	6,302
2006		28,629	19,264	2,871	-	16,393
2007		33,073	15,379	2,654	-	12,725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2)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농산물 물류표준화는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단위적재시스템(ULS: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pallet) 적재, 하역기계화를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파렛트, 지게차, 광폭차량, 선별기 등에 '97년부터 총사업비 7,50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7-28> 물류 표준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용자	자담
2005		67 개소	692	300	-	392
2006		30 개소	507	235	-	272
2007		79개소	1,633	812	-	821

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료 농산물의 구입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지원 내용으로는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전통적인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의하여 제조 가공하는 생산자단체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및 기존업체의 시설 개·보수, 현대화, 자동화 사업을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전액 융자지원 해주고 있다.

3. 농특산품 수출진흥

우리 도의 수출 진흥정책은 농가 실질소득 증대와 연계한 수출농업기반 조성과 공격적인 세일즈 활동전개로 수출에 자신감을 갖도록 추진한 결과, 충북포도를 미국에 최초 수출하였으며,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가. 수출현황

공격적인 미니세일즈 해외시장 개척 활동과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 수출단지 중점육성 및 신선농산물 지원에 힘입어 전체 수출실적은 203백만불로 전년보다 19%가 증가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였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김, 관상어 등 수산물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표고버섯을 비롯한 임산물의 수출이 상승하여 총 수출액 203백만불로 전년대비 19% 상승하는 수출실적을 보였다.

<표 2-7-29> 농·특산품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분야별	2006실적 (A)	2007년도 실적			전년대비
		목표(B)	실적(C)	C/B	
합 계	171	190	203	107	119
농산물	136	151	176	117	129
축산물	22	26	13	50	59
임산물	3	2	5	250	167
수산물	10	11	9	82	90

나.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이고 규격화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하여 35개소(정부지정 14개소, 도지정 21개소)의 수출주산단지를 육성하여 농산물 생산·수출에 필



요한 생산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1,9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정 시설원예전문단지 2006년 6개소에서 2007년 14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 받는 등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였다.

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선농산물은 특성상 선별, 포장, 운송 등의 수출 물류비를 2006년 468백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품목의 다변화를 통하여 65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라.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

우리도 중소식품가공업체와 농업인에게 수출세일즈 기회제공을 통한 독자적 해외시장 진출능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농특산품 특판전을 개최하여 우리도 우수농특산품을 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였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지원으로 수출확대를 도모하였다.

<표 2-7-30> 시장개척단 파견

연도별	구분	국가별	횟수	지원액 (천원)	계약액 (천달러)	참가 업체수
2005		독일,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회	75,000	7,095	36
2006		일본, 미국, 대만	3회	75,000	13,325	50
2007		베트남·중국, 미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4회	75,000	11,500	31

<표 2-7-3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연도별	구분	국가별	횟수	지원액 (천원)	계약액 (천달러)	참가 업체수
2005		캐나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13	31,170	22,258	28
2006		일본, 미국, 대만, 중국 등 8개국	9	27,521	10,507	29
2007		미국, 일본, 중국 등 15개국	16	42,297	9,613	36

4. 특작 · 원예작물 생산

가. 인삼 · 특작생산

(1) 인삼산업육성

(가) 재배현황

인삼은 오래 전부터 고소득 작목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어 왔다. 재배면적은 '90년을 정점으로 감소되다가 '96년 홍삼전매제 폐지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7년 우리 도 재배면적은 3,929ha로 전국 재배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전국 제1의 주산지이다. 앞으로도 인삼재배 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농가 소득작목으로 계속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가격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

<표 2-7-32> 인삼재배 추세

(단위 : ha)

구 분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국		9,160	12,015	13,081	14,154	16,405	17,831
충 북		2,458	2,699	2,583	2,772	3,546	3,929
점유율 (%)		24	22	20	20	22	22

* 자료 : 농림수산물부 채소특작팀

(나) 시책추진

□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96. 7. 1 인삼산업법이 제정 · 시행되어 인삼업무가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농림수산물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담배인삼공사의 홍삼 독점전매 체제가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

우리 도에서는 인삼경작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충북 인삼의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인삼계열화사업으로 604ha, 160억원을, 인삼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3,057ha, 3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삼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인삼계열화사업 확대 및 도매시장경매 참여 등 판로를 확대하고 인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삼 가공공장 활성화 및 수출촉진

인삼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은 다양한 인삼제품 개발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안 인삼가공공장을 중심으로 절편삼, 정과, 엑기스

등 새로운 인삼제품 개발과 충북상징 상표를 개발하여 본격적인 유통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충북 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 확대를 위하여 일본, 홍콩,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국제 식품박람회, 해외시장 개척단 등에 적극 참가하여 수출실적 5,581천 \$를 올렸으며 2008년에는 9,700천 \$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3회), 국제식품박람회(5회) 등에 적극 참가하여 충북 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수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한다.

(2) 특용작물 생산

(가) 재배현황

2007년도 참깨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땅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버섯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생약은 제천지역의 재배면적은 감소되었으나 청원군, 보은군, 단양군 등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2-7-33> 특용작물별 생산추세

(단위 : ha/톤)

작목별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참	깨	2,946/1,355	2,625/1,628	2,719/1,849	2,873/1,467	2,675/1,267
땅	콩	277/510	207/460	172/327	206/464	252/635
버	섯	89/7,907	101/7,382	102/9,474	45/7,500	47/10,854
약	용	669/4,100	477/3,456	521/1,560	530/2,179	601/2,655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충북)

(나) 추진시책

특용작물 지원사업으로는 시군별 특화품목 육성계획에 의거 약초 건조기, 세척기, 절단기 등 상품화시설과 재배시설 등 211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천 GAP황기 등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예작물생산

(1) 채 소

(가) 생산현황

2007년도 채소류의 재배 면적은 16.2천ha로 지난 해 보다 5.2% 증가하였고, 생산

량은 지난 해 484천 M/T보다 15.1%가 감소한 411천M/T이 생산되었다.

고추, 마늘은 주산지의 소득작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김장 무·배추는 농업관측과 농사정보 및 유통정보를 통한 홍보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는 신선한 고품질의 청정채소를 적극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표 2-7-34> 채소 생산량

(단위 : 천ha, 천M/T)

품목별	연도별	2005		2006		2007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계		16.2	367.1	15.3	388.9	13.5	306.3
고추		8.8	25.5	7.3	20.0	7.1	19.6
마늘		0.7	4.4	0.6	4.4	0.6	4.4
무		1.6	72.3	1.8	80.2	1.5	66.1
배추		2.5	168.1	2.8	187.6	2.0	134.1
수박		2.0	82.2	1.8	71.6	1.5	61.4
파		0.6	14.6	1.0	25.1	0.8	20.7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채소 생산실적(충북)

(나) 추진시책

농업관측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배면적의 자율적 조절 및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조절로 가격의 안정을 기하는데 채소류 생산의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과학영농특화사업·지역특화육성사업,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비가림시설, 저온저장고 등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괴산고추공동사업법인이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이어서 고추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7-35> 채소류 주산단지 현황

구분	고추	마늘	시설채소	가을무배추	고랭지무배추	양채류
단지수	64	4	10	2	3	1
기준	읍·면·동 당 50ha이상	읍·면·동 당 30ha이상	읍·면·동 당 30ha이상	읍·면·동 당 50ha이상	읍·면·동 당 30ha이상	시·군·구 당 10ha이상
대상시군	11개시·군	제천, 단양	청주, 충주, 청원, 영동, 음성	청원, 영동	청원, 제천, 단양	제천

(2) 과 수

(가) 생산현황

우리 도의 주요 재배 과종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생산량은 전국의 5~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 과실 생산량은 2006년 186천M/T과 비슷하다.

(나) 추진시책

과수산업육성을 위하여 FTA기금을 활용,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개방화에 따른 과수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과실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원하였다.

사업별로는 생산시설현대화 388ha, 생산기반정비 2개소 159ha, 거점산지유통센터 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시설포도·복숭아 263ha의 과수재배업 포기 농업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사과와 복숭아에 대한 브랜드육성 지원과 재해보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부담금의 50%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켰고 안정적 과실생산을 도모하였다.

<표 2-7-36> 과실생산 실적

(단위 : ha, M/T)

구 분	연도별	2006		2007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계		13,214	186,031	13,207	183,342
사 과		3,996	50,112	4,200	53,202
배		1,224	24,286	1,112	22,439
복 승 아		3,387	44,979	3,309	38,318
포 도		2,911	51,874	2,775	49,340
기 타		1,696	14,780	1,811	20,019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과실 생산실적(충북)

(3) 화 훼

(가) 생산현황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꽃 소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겨울철 고유가로 인하여 난방비 부담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우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다.

<표 2-7-37> 화훼재배 면적

구분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재배면적(ha)		220	238	244	290	274	260
농가수(호)		427	427	376	383	378	355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화훼 재배현황(충북)

(나) 추진시책

우량품질의 꽃 생산과 노동력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사업 지원에서 꽃 주산지 중심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 완비된 현대화, 자동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에 맞는 작목육성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화훼 수출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화훼 수출단지에 시설 개보수, 난방비 절감시설 등 1,427백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5. 양정관리

가. 정부양곡 수급

2007년도 우리 도 양곡수급은 전년 이월량 64.8천톤과 MMA⁴⁾수입쌀 19.9천톤, 2007년산 공공비축매입량(포대벼) 22.4천톤 등 107.1천톤을 확보하여 군·관수용, 학교급식용, 가공용, 주정용등으로 58.8천톤과 대북 쌀 지원용 3.2천톤 등 62천톤을 공급하고 45.1천톤을 2008년으로 이월하였다.

나. 정부양곡 비축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가 공공비축미곡매입제로 바뀌었으며, 2007년산 추곡은 2007. 9. 20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하여 2008. 1. 9일까지 매입을 실시한 결과 비 전년대비 20% 감소한벼 725,090포대중 산물벼 166,420포대, 포대벼 558,670포대를 매입하였다. 매입가격은 10월~12월중 산지쌀값의 전국 평균가격인 150,810원(정곡 80kg 기준)으로 확정하여 40kg(조곡 1등급)기준 포대벼 52,030원, 산물벼 51,360원(포대벼에서 포장제비용 670원 차감)으로 확정했다. 등급별 매입실적을 보면 특등 140,243포대(19.3%), 1등 513,642(70.8%), 2등 67,839포대(9.4%), 3등 3,366포대(0.5%)

4)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 물량

로 전년대비 특등비율이 감소하고 2등 비율이 크게 증가함.

매입방법으로 포대벼는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산물벼는 농가편의를 위하여 RPC를 통해 매입하였고 '07년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건조산물(톤백) 매입을 시범 실시 하였다. 2007년산 추곡매입에서는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은 우선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입, 전년과 같이 수매량을 미리 예시하여 농가와 정부(농협대행) 간에 가을에 매입할 물량을 약정한 후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목표가격의 80% 수준을 선도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산지 쌀값과 차액은 익년도에 정산한다.

<표 2-7-38> 공공비축 미곡 매입 실적

(단위 : 포대/40kg)

구 분 시·군별	추 곡 매 입		전년대비(%)
	2006	2007	
청 주 시	31,675	25,453	80.4
충 주 시	108,780	91,392	84.0
제 천 시	31,585	27,389	86.7
청 원 군	222,810	175,900	78.9
보 은 군	102,803	62,290	60.6
옥 천 군	61,532	49,906	81.1
영 동 군	68,093	58,813	86.4
중 평 군	24,275	19,574	80.6
진 천 군	67,332	46,905	69.7
괴 산 군	106,909	90,560	84.7
음 성 군	77,129	68,027	88.2
단 양 군	9,514	8,881	93.3
계	912,437	725,090	79.5
전 국	17,500,000	14,489,010	82.8
대 비	5.2%	5.0%	

다. 정부양곡 및 안전관리

(1) 보관실태

2007. 12월말 기준 양곡의 재고량은 45.1천톤으로 계약시설 227동(보관능력 171천톤)의 26.4%이다.

<표 2-7-39> 정부양곡보관 현황

(단위 : M/T)

구분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동 수		238	231	232	749.1
창고면적		26,166	25,812	26,390	86,199.3
보관능력		166,027	166,096	170,550	564,471.6
보관물량		28,487	39,495	62,104	148,767.3
이용률(%)		17.2	23.7	36.4	26.4

※ 2007. 12월 말 기준

(2) 안전관리

정부 양곡보관창고에 보관된 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 시·군·농관원 합동으로 정부양곡 재고 조사를 3월말과 10월말을 기준으로 2회 실시하여 양곡 부정사고를 사전 예방하였고 상반기에는 도내 행정기관, 농관원, 농협의 양곡관리 책임자 및 창고주를 대상으로 정부양곡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 및 월별 확인점검으로 적재기준 준수, 보관장비 비치, 관리요원 배치, 창고내 적정습도와 쥐 피해 방지실태를 중점 관리하였다.

그리고 훈증소독 연 2회와 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해빙기 1회, 강우기 및 폭설시에 각각 1회씩 실시하고 있다.

라. 양곡관리비 집행

'94년부터는 양정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새로이 양곡증권정리기금을 신설, 기존의 기금 운용으로 누적된 부채(양곡증권 발행액, 차관 양곡대 등)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계정식⁵⁾ 성격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다가 '99

5) 청산계정식 : 기존의 운영되는 기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절차

년부터 양곡사업은 양곡관리특별회계로 통합 운용하게 되어 매입자금 등 새로운 양곡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2007년도 충청북도 양곡관리비 운용액은 68억원이며, 양곡매입자금은 377억원으로 중앙정부에서 농협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였다.

<표 2-7-40> 양곡관리비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계	94,177	67,000	54,134	44,423
양곡매입비		79,967	58,687	46,979	37,673
조작관리비	소계	7,105	8,313	7,155	6,750
	보관료	3,934	4,035	2,822	2,708
	운송료	893	858	1,992	1,897
	가공임	2,278	3,420	2,341	2,145

제4절 축산 및 수산

1. 축산진흥

가. 시책방향

축산물의 수입개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생산·품질·유통·안전성 중심으로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첫째, 축산업 선진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젓소의 산유능력검정 및 한우수정란이식, 돼지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고능력 돼지액상정액공급 확대, 육우거세기술비 지원과 한우광역브랜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우 번식핵군조성,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참여조합 기자재 지원 및 브랜드 홍보,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추진, 축산경영 안정 및 자생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위한 낙농착유도우미 및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양봉화분사료공급, 가축공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둘째,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및 공동자원화시설, 예비살포비지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 악취저감 생균제 공급으로 자연순환형 가축분뇨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존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생산 전용트랙터 및 장비지원, 조사료 및 발효사료제조시설 지원, 가축사육환경개선으로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항생제 무첨가 사양시스템보급, 돼지, 닭 사양관리개선 시설 보급, 축산농가 송풍(휨)시설 설치, 왕겨살포기 보급을 추진하였다.

셋째, 사전예방적 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운영 영소농가 소독을 지원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적 질병 청정화, 우결핵 등 인수공통점염병 확대 검진, 소 브루셀라병 근절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요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와 돼지단독·콜레라 예방백신도 지원하였다.

넷째, 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개최, 친환경축산물 TV홈쇼핑 및 소비 홍보행사 개최, 학교 우유급식 확대와 축산물 유통 소비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도축장 운영 활성화자금지원, 한우고급육품평회 및 젓소경진대회 개최, 산유능력검정평가회 개최, HACCP컨설팅 지원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위생검사강화, 식육 및 출하전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내수면 어업 활성화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성·토산어 종 치어를 매입 방류하고 대청호 은어 소득자원화 사업지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빙어수정란이식,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지원,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를 지원하였다.

나. 가축 사육동향 및 시세

(1) 사육두수

한우는 사육여건이 안정된 전업규모 농가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산지소감 안정에 따라 농가가 사육규모를 늘려 전반적으로 농가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사육두수는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젖소는 우유생산 과잉에 따른 원유생산쿼터제 실시 등으로 농가수와 두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사육농가는 폐업을 하고 점차 규모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돼지는 가축분뇨처리 문제로 생산성이 낮은 소규모 사육농가의 폐업이 증가 하면서 소·중규모 사육농가는 감소하였고 대규모 사육농가는 증가하여 사육두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닭은 전업화 추세에 따라 사육호수 및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는 전업화 추세로 전체 사육두수 중 전업농가들이 사육하는 두수가 한우는 50두 이상 농가가 41.1%, 젖소는 50두 이상 농가가 72.5%, 돼지는 1,000두 이상 농가가 93.1%, 닭은 3만수 이상 농가가 72.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7-41> 주योग축 사육현황

연도별	구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호수	마리수
2006	13,715	146,827	476	23,583	451	522,246	247	8,586,630		
2007	13,019	159,935	459	23,218	407	549,533	210	7,105,825		

※ 닭은 3,000수 이상 사육농가만 조사

(2) 축산물 소비동향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 양식의 서구화로 곡물류 등의 소비가 줄고 우유·축산물·채소류 등의 소비 비중을 증가시키는 식생활 구조의 변화로 축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1인당 소비량이 육류가 33.1kg, 우유가

63.5kg, 계란 235개 였으나 2007년도에는 육류가 35.7kg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우유가 63.0kg, 계란 226개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2-7-42> 축산물 소비동향(1인당)

구분	연도별	2004	2005	2005	2006	2007
육류 총량(kg)		31.3	32.1	32.1	33.1	35.7
쇠고기		6.8	6.9	6.9	6.8	7.6
돼지고기		17.9	17.9	17.9	18.3	19.2
닭고기		6.6	7.3	7.3	8.0	8.9
계란(개)		193	202	202	235	226
우유(kg)		63.7	62.7	62.7	63.5	63

(3) 주요가축 산지가격

연도별	구분	한우		젖소 (초산우)	비육돈 (100kg)	육계 (kg)	계란 (10개)
		큰수소 (600kg)	수송아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원	원
2004		4,090	2,179	1,851	242	1,462	1,097
2005		4,664	2,068	2,267	253	1,355	895
2006		4,113	2,815	2,311	253	1,201	812
2007		4,655	2,131	2,256	223	1,161	780

다. 가축개량

(1)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한우의 순수혈통 보전, 개량 및 우량한우 보호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우 개량농가를 육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 종모우 정액으로 계획교배 시켜서 한우 개량을 추진한 결과 한우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육량과 육질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2-7-43>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년도별	참여호수	등록두수	호	등록두수	
				고등등록우	육종등록우
	호	두	두	두	두
2006	1,159	7,075	3,027	4,048	0
2007	1,187	6,884	3,188	3,696	0

(2) 가축인공수정 추진

소 인공수정은 사육두수의 증가와 가축개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가축인공수정소도 121개소가 등록되어 소는 대부분이 인공수정에 의해 시술되고 있다.

<표 2-7-44> 가축인공수정실적

축종별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합 계(천두)	54	63	71
한 우(천두)		46	55	63	68
젖 소(천두)		8	8	8	7

(3)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체

돼지와 닭은 능력이 우수한 실용축을 확대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종돈업 10개소, 종계업 17개소, 병아리(실용계) 부화업체 20개소가 있으며, 돼지의 인공수정 보급확대를 위한 정액 등 처리업체 5개소, 일정 규모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 방역관리시스템 및 친환경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하기 위하여 축산업등록 농가는 3,298개소 있으며, 계란집하업도 3개소가 있다.

라. 축산농가 경영안정

(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생우 및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번식 기반을 유지하는 제도적

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98. 7. 16일부터 '99. 12. 31일까지 처음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으로 청원, 보은, 충주, 제천의 4개지역에 시행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안정기준가격 120만원, 보전금지급한도액을 25만원으로 4,057호에서 계약암소 마리 당 10,000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여 11,668두의 암소가 가입하였으며, 2001~2005년까지 안정기준가격 120만원, 보전금 지급한도액 25만원이었으며, 2007년도는 안정기준가격 155만원, 보전금 지급한도액 30만원으로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가 지속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총 68,540두(신규계약 31,956두, 재계약 36,584두)를 계약하였다.

안정보전금 지급은 '99. 1/4분기에 867두분 61,557천원(두당 7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을 상회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2)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을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통합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는 일정소득을 보장받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통일된 사양관리와 균일한 규격품 생산으로 소비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가축 계열화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진천 체리부로식품(주)에 2,958백만원을 지원하여 '96년도에 도계장 증설, 육가공장, 부화장, 종계장 시설을 완료하고 육계농가와 계열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 금왕산업단지내에 농협중앙회(구 축협중앙회)에서 332억원(정책자금 융자 1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13,000평에 3,728평의 현대식 농협 목우촌 계육 가공공장을 '99. 10. 29일 개장하여 국내 육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육계 계열화 사육비로 20억원을 지원 하였다.

또한 양돈 계열업체인 한냉인티(한국냉장 청원LPC)에도 계열사업비 2,068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오리계열화업체인 모란식품영농조합법인(음성군 소재)에 부화장 설치비 810백만원, (주)엠에스푸드에 사육비 1,007백만원을 융자 지원 하였다.

(3)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학교 우유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 및 장기적인 우유소비기반 확보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초·중·고교생에 대하



▲ 우유 빨리 마시기 대회

여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 기타 극빈 학생을 대상으로 1일 23,049명에 1,440백만원을 지원하여 전액 보조급식을 실시하고 기타 일반학생에 대하여는 공장도 가격인 200ml에 270원씩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표 2-7-45> 학교우유급식실적

구분	계		보조급식		일반급식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별	개교	천명	개교	천명	개교	천명
합 계	464	218	464	23	397	195
초 등 학 교	264	148	264	14	242	134
중 학 교	122	40	122	5	102	35
고 등 학 교	78	30	78	4	53	26

(4)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

「충북한우」 광역브랜드화로 브랜드파워를 제고하여 안정적으로 생산·유통·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DNA-Marker검사를 실시하여 우수 씨암소 1,844두를 선발 번식밀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884백만원을 투자하여 연간 38천두에 유전적으로 육질개량도가 높은 보증종 모우(씨수소) 인공수정료, 혈통등록료 등을 지원하여 충북한우 번식핵군 조성과 광역브랜드 기반을 구축중에 있다.

(5)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

수소 거세를 유도하여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7년 2,300두에 사업비 345백만원을 투자하여 고급육생산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결과 2007년도 우리도의 1등급 출현율은 53.4%로 전국 1등급 출현율 51%보다 높게 나타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6) 축사 송풍(靛)시설 보급사업

가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가스로 오염되기 쉬운 축사내부 및 바닥을 송풍(靛)시설을 보급하여 쾌적한 상태 유지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에 사업비 1,600백만원을 투자하여 707호에 4,165대의 시설을 지원하여 축사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